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11호 (8월 31~9월 6일)



노작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특집1 조중정상회담

자민투위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전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북남당국대화의 재개를 제의 / 조평통 부위원장 통일부장관에게 통지문
조평통 서기국 북남대화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한나라당＞을 규탄
대전충남 학생운동 대토론회
한총련, 하반기도 ≪안티조선≫ 계속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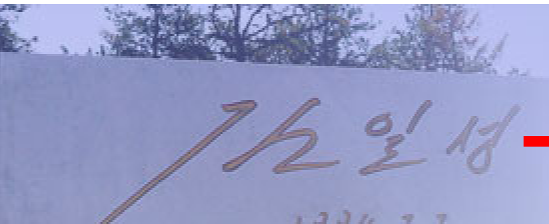
6.15WEEKLY

제11호 (8.31~9.6)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재미교포들과 한 담화

주체82(1993)년 3월 11일



나는 오늘 미국에서 온 선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들이 지금 정세가 매우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들을 만나주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나는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지만 선생들이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갈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 왔기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여 선생들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들이 조국에 와서 우리 일군들과 담화도 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도 하였기때문에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충분히 리해하였으리라고 보면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 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중요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나는 그전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를 만났을 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민족대단결입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자주의 원칙도 지킬수 있고 평화통일의 원칙도 더 잘 관철할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입니다.

선생들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북과 남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련방제를 실시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들이 남조선에서 살아 보아서 알겠지만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자본이 들어 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자본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공업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신문이 폭로한데 의하면 남조선공업에서 자체의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텔레비죤수상기 같은것만 놓고 보아도 틀거리나 만들고 부속품들은 거의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조립한다고 합니다. 남조선경제는 예속적인 수출주도형경제이고 그 명맥은 큰 나라들이 틀어 쥐고 있기때문에 이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면 하루아침에 질식되고 맙니다.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은 남조선이 사회주의화되면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빼앗길것 같아 겁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사회주의화하여 우리의 적대국들을 더 많이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여 남조선에 투자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리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를 자본주의화하는것도 반대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여 있으며 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자본주의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인민들이 좋아하는 사회주의사회를 남조선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로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경제건설에서 난관을 좀 겪는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고수해 나갈것이며 절대로 남조선처럼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 인민들을 외국독점자본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을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기자고 합니다. 우리는 후대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잘 운영해 나간다면 남조선경제도 외국자본의 예속에서 점차 벗어 나게 될것이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도 더욱 강화되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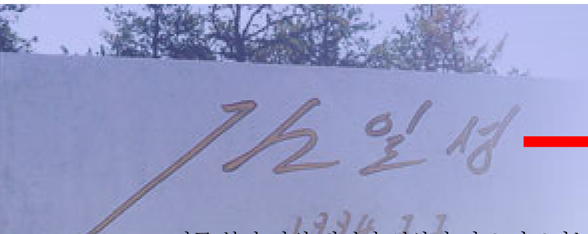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는 반드시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하려는것은 그 어떤 강대국이 되기 위한것도 아니며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되기 위한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큰 나라들이 많으며 이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각축전을 벌려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날 리조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자주성을 잃고 주변의 큰 나라들에 의존하다보니 종당에는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통일된 련방국가가 큰 나라들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는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련방제조국통일방안을 내놓을 때 통일된 련방국가는 반드시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도 늘 그렇게 말하군 합니다.

이전에 오지리수상을 하던 사람이 나를 찾아 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여러 나라 의사들을 초청하여 여러해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나라의 고려의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고려의학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입니다. 나는 오지리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통하여 그가 우리 나라 고려의사들을 초청한다는 말을 듣고 유능한 고려의사들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의사들이 오지리에 가서 그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친 이전 오지리수상은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김일성**주석을 만나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 담화하면서 당신네 나라가 중립국으로 된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 있는 나라는 중립정책을 쓰는것이 제일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고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되면 주변의 큰 나라들이 위성국으로 만들지 못할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외동포들속에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될수 있습니다.

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로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한 종교인들까지 묶어 세웠습니다. 나는 백두산일대에 진출하여 무장투쟁을 벌릴 때 북부조선일대의 천도교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결심을 가지게 된것은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민족적인 종교이고 교인들의 반일감정이 높았기때문이였습니다. 당시 천도교중앙의 교령은 최린이였는데 그는 변절하여 교인들에게 일본의 승인을 받아 자치를 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일본의 승인을 받아 자치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도교인들이 최린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결국 천도교는 두개의 파로 갈라 지게 되였습니다.

나는 반일적인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묶어 세우기 위하여 천도교 함경남도 도정이였던 박인진을 포섭하였습니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보고 우리를 적극 지지하여 나섰으며 광범한 천도교인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풍산, 삼수일대는 물론, 창성, 삭주일대의 천도교인들과도 깊은 련계를 가졌습니다.

나는 해방후에도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종교인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 빼고 민족자주의식을 심어 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량욱목사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을 만나서는 ≪하느님≫을 믿어도 서양의 ≪하느님≫을 믿지 말고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였으며 불교인들을 만나서는 조선의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종교인들을 만나면 늘 그렇게 말해 주군 합니다. 그전에 재미교포인 김성락목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그들이 숭미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 나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와 손을 잡고 새 사회건설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당국자들과도 될수록 단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신년사에서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집권자도 ≪대통령≫취임연설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봄날 한나산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천지못가에서도 좋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김일성**주석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집권자의 말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하여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나를 만나겠다고 한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조선집권자가 진심으로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 나도 그를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당장 만나겠는가 하는것은 더 연구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남조선집권자가 ≪대통령≫감투를 쓰기는 하였지만 군부도 쥐지 못하고 ≪안기부≫도 쥐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남최고위급회담에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참가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심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련방제방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방안들은 다 나라를 통일하자는것이지 통일에 방해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남조선집권자가 어떤 립장과 자세로 나오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20여만명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미제와 함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한것은 현 남조선집권자가 아니라 전 남조선집권자입니다.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하고 판문점에 리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집까지 짓자고 약속하였으나 전 남조선집권자는 그에 도전하여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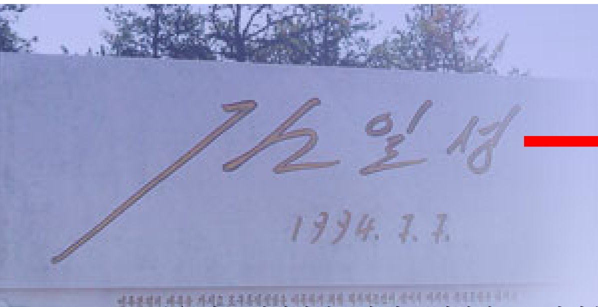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입니다. 적들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것입니다.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100여만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속에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포들이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목격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길림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드는 곳이였습니다. 나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김찬, 신일용, 안광천을 비롯한 화요파와 서상파, 엠엘파의 거두들도 만나보고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의 두령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길림복흥태정미소에서는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3부통합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학교에 갔다오다가 그곳에 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부질없는 말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좀 자극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3인1당≫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그들앞에서 공연하였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풍자한 연극이라는것을 알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조선국민회의 조직자인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나를 어쩌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노발대발하는 그들에게 선생님들이 나를 욕하지 말고 빨리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독립도 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밤낮 말싸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후 그들은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를 통합하여 국민부를 내왔습니다. 그때 내가 만든 연극 ≪3인1당≫은 오늘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혁명연극으로 각색되여 사람들의 깊은 관심속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재미교포들도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쏘련이 망했기때문에 로씨야를 겁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면 우리와 좋은 친구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원≫의 뜻을 품고 혁명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시면서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에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 담긴 ≪지원≫이라는 글을 써붙이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일제를 몰아 내고 나라를 독립하자면 ≪지원≫의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사람들에게 두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 조선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째 결함은 단결하지 못하는것이다, 나라를 독립하자면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하겠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끔 삼인일당, 오인일파식으로 당파를 뭇고있다, 둘째 결함은 일을 5분열도식으로 하는것이다, 혁명투쟁은 일정한 시간 바글바글 끓다가 그만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1926년에 ≪ㅌ. ㄷ≫를 결성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70년동안 조선혁명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원≫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선생들이 미국에서 주체사상보급사업을 적극 벌리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이전 쏘련이나 동구라파나라들의 사회주의와 같은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나라들의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지식인들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해방전에 북조선에는 전문학교가 몇개 있었을뿐이고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고치지 않는 조선사람들은 소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족성이 강한 조선사람들의 아들딸들은 학교에 갈수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법과를 나온 사람은 좀 있었어도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은 10여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지식인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종합대학을 세우려고 할때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종합대학을 세우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여 지식인들을 데려 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 있는 오랜 박사들가운데 그때 남조선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후 우리는 나라의 여러 곳에 대학들을 더 내오고 많은 지식인들을 키워 냈습니다. 이제는 지식인대렬이 160여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대학들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이 지금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지금 우리 혁명을 잘 령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게 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자고 합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면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가장 문명한 민족으로 될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거지나 아편중독자,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미교포 김성락목사도 나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땅우에 천국을 건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들이 내가 쓴 회고록을 읽고 혁명동지들에 대한 나의 의리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여기 금수산의사당에서 대성산 주작봉이 잘 보이는데 거기에 혁명렬사릉이 있습니다. 나는 희생된 동지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여기서 대성산에 있는 혁명렬사릉을 바라보군합니다.

대성산에 있는 혁명렬사릉에 항일혁명렬사들을 다 안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다 혁명렬사릉에 안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렬사릉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주요지휘관들과 중요직책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선발하여 안장하고 그들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혁명렬사릉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전령병이였던 김봉석동무의 반신상도 세웠습니다. 김봉석동무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하루전인 1945년 8월 14일에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여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느 한 집에 들려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가 다른 때 같으면 배고픈것을 참고 돌아 올수도 있었겠는데 인차 조국이 해방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배를 곯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 가 밥을 달라고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 들어간 집주인이 일제의 주구였습니다. 그 집주인은 김봉석동무가 떠나자 인차 일제놈들을 찾아 가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김봉석동무는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두만강을 건느다가 적탄에 맞아 희생되였습니다. 김봉석동무가 강복판에서 총에 맞다보니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들이 내가 쓴 회고록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회고록 제4권을 쓰고 있는데 더 늙기전에 계획하였던 회고록을 다 쓰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들이 조국에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



(중략)...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리상촌≫ 건설의 허황한 꿈에서 건져낼 수 없었으며 료하농촌을 중부만주의 본보기농촌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할 탓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석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변두리만 돌고 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전적에다가 학식과 이론을 겸비한 영감들이어서 보통수완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촌공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총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로인이었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종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뜨르쯔끼≫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인 그가 뜨로쯔끼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변로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각지를 떠돌아다니었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평안남도)과 자성, 도청거우(림강현)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 것은 1918년 림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연계를 가지느라고 림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로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삼촌이 그와 아버지의 연계를 지어주었다.

대한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의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리상촌≫ 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로인이 한때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로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고한 유지집단을 돌려세

울 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화할 수 없었다.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우회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리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영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
≪영감들이 뭐라건말건 우린 우리끼지 조직을 내오고 딴 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로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오가자를 저 락후한 영감들에게 맡길 수는 없구.≫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장 선생네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달환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해임시정부에서도 오고 엠엘계의 공산당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냉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록록치 않은 민족주의 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회장선생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고 했더니 변달환은 벽창호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하였다. 변달환은 10년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로인의 편지를 가지고 림강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군하는 변달환이네 집에서 여러날 ≪번뜨르쯔끼≫ 영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로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 이론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로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 살 불쿠어 스물세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덟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송이처럼 대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것만큼 스물세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살아니면 스물네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로인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예절을 차리면서 참을성있게 들어주었다.
로인은 요새 젊은이들은 남이 열마디를 하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요, 뭐요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형직선생이 생존해계실 때 자기는 림강에서 식사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상 차렸다고 하였다.
로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리상촌≫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계한다고 하던 변달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리상촌≫을 허물다니요. 우리가 도와드리진 못할망정 로인님들이 공을 들여 꾸려놓은 ≪리상촌≫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달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이 밤낮 ≪리상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늙은 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 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림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리상촌≫이라는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 번 우리 ≪리상촌≫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보아라.≫
≪나는 ≪리상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동포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오붓이 살아보자고 꾸린 것이 ≪리상촌≫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료하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동네를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로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로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콧수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고 없고 관청도 없네. 촌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단 말일세. 이런 리상적인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이때야말로 ≪리상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로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엄을 뽑던 로인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씰룩거렸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렸네. ≪리상촌≫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주고 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네. ≪리상촌≫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리상촌≫ 건설의 허황성을 논증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땅에다가 ≪리상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부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이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이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놈들은 조선민족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리상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건가?≫
변로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에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이지. 그건 안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기미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운동에도 방향전환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게 말짱 미친놈들뿐이더란 말

일세. 그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아더군.≫

변대우로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내보인 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두 이런 당증이야 없겠지?≫

로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증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로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증인데 좀 두고보겠습니다.≫

로인이 당증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안툰, 내도산, 카륜,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로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깊에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스딸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하네. 그러나 스딸린만 스딸린이라고 해서는 안돼. 뜨로쯔끼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서 뜨로쯔끼의 이론을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뜨로쯔끼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이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뜨로쯔끼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로인에게 물었다.

≪로인님께서는 뜨로쯔끼를 그처럼 숭배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나는 사실 뜨로쯔끼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거네. 뜨로쯔끼면 뜨로쯔끼고 스딸린이면 스딸린이지 지금 젊은 것들은 쩍하는 큰 나라 사람들의 명제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인가. 스딸린의 명제가 어떻게 뜨로쯔끼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야 로씨아 사람들이나 할 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할 게 아닌가.≫

로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동안 ≪변뜨로쯔끼≫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로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로인이 뜨로쯔끼파가 아니겠는가하는 의혹도 가지었다. 뜨로쯔끼파는 아닌데 종파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 무엇때문에 로씨아아 어떻소, 스딸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로씨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로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은 분명 이런 것이었다. 요컨데 제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달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기어코 해보겠네.≫

나는 로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입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변대우로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새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정도, 남녀로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2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로인은 강한 충격은 받은 것 같았다. 로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으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변달환이네 부자는 둘 다 안해가 없었다. 로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배어있는 쓸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셔버릴 수 없었다.

나는 알맞은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문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 근방 농촌에서 심씨성을 가진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과 짝을 무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혼례까지 치르어주었다.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게도 생각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 나서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어느날 변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유지들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리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를 나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 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탄복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 나서 나는 변로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로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고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야단이었다.

그후 당증은 우리 동무들 손에서 돌아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로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더니 로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 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전체가 하나의 리상촌, 리상천국으로 된 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고 하였다. 그때가 로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난 그해에 로인이 길림시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퍽 후에야 들었다.

변로인의 아들 변달환은 오가자에서 농민동맹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해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유지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청하였다.

…(중략)

인덕의 최고화신 김정일영수님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9월 1일자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인모씨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 민족의 장한 아들들이며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조국은 수십년세월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어머니품을 그려온 장한 아들들을 한품에 뜨겁게 안았다. 꽃보라에 묻혀, 꽃바다에 실려 민족의 영웅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은 영광의 단상에 서게 되었다.

한두명도 아닌 63명이나 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한꺼번에 송환된 예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전쟁포로를 데려가라고 했으나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수십년세월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느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고 그들 모두가 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시였다.

그래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됐던 것이다.

위대한 영수님께서는 ≪신념≫과 ≪의지≫를 천만재보보다도 더 값높이 여기시고 불굴의 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내세워주고 계신다. 위대한 영수님의 한없는 사랑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꽃피도록 해주고 있다.

위대한 영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고 불굴의 애국투사들이라고, 비전향장기수라는 말은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위대한 주석님과 우리 당을 믿고 30~40년동안 모진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지켜낸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비전향장기수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며 혁명가들의 본보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당의 품에 데려 왔으니 한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그들의 청춘을 되찾아 여생을 아무런 불편이 없이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친어버이 정 넘치는 말씀을 주시었다고 한다.

위대한 영수님의 사랑 속에 비전향장기수들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되찾았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가정도…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에 도착한 날로 유능한 의사들을 주치의로 붙여 저주로운 지난날이 남긴 질환을 다 털어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청춘의 활력에 넘쳐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그 은정을 어찌 무심히 들을 수 있겠는가.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에게 궁궐같은 호화주택을 마련해 주시었다.

방안에는 온갖 가재도구들과 기물들, 가전제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다. 이불장에는 비단이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영수님의 사랑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미쳐 공기마냥 가득차 있다. 특별히 마련된 에어컨, 고급승용차와 버스, 철따라 갈아입을 갖가지 의류들… 베푸신 그 은정 끝이 없는데 언제인가는 고급화장품과 ≪효자손≫이라고 부르는 잔등긁개까지 보내주시어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울었다고 한다.

화장품을 바른다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얼굴에 패인 주름이 이제 펴지랴마는 청춘으로 소생하라고 정담아 특별한 화장품을 보내주시고 늙은이들의 생활습관까지 헤아려 보내주신 ≪효자손≫이었다.

예로부터 큰 사람은 다심하지 못하고 다심한 사람은 크지 못한다고 했지만 위대한 영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다심하고 살뜰하신 분이시다.

위대한 영수님을 떠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생각할 수 없다.

하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의 품에 안긴 첫날부터 이인모동지가 지은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즐겨 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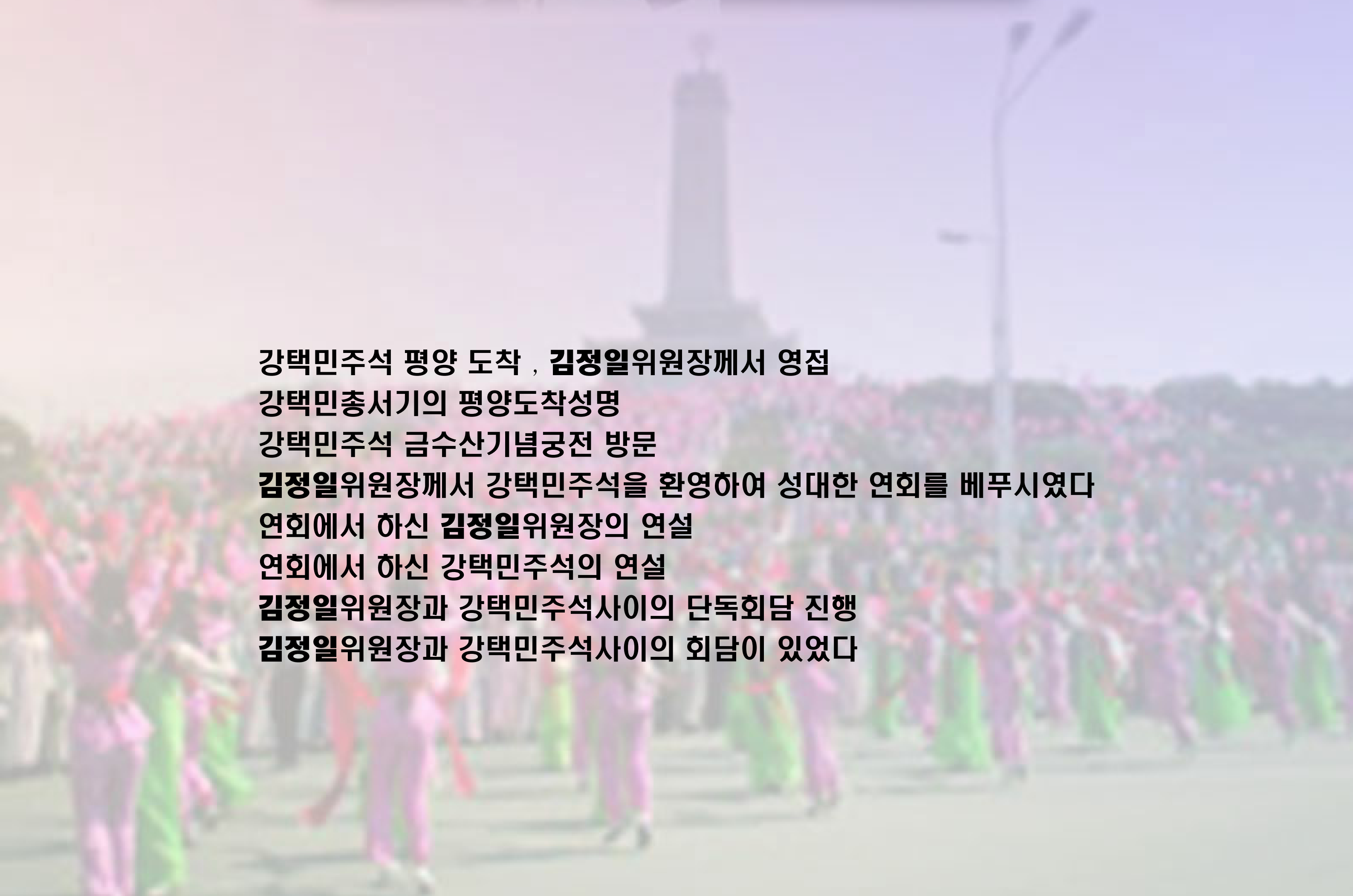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베푸신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김광철≫

특집

조중회담





강택민주석 평양 도착 , **김정일**위원장께서 영접
강택민총서기의 평양도착성명
강택민주석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연회에서 하신 **김정일**위원장의 연설
연회에서 하신 강택민주석의 연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강택민주석 평양 도착, 김정일위원장께서 영접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이 3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강택민주석을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이날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비행장에는 중국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평양시내 수천명의 군중들이 조중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환영장식물들을 들고 나와 있었다.

국기게양대들에는 조중 두 나라 기발이 나붓기고 있었다.

김정일위원장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일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조선로동당 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박용석,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정하철,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중국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 최진수,당,무력기관,근로단체,성,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또한 조선주재 중국특명전권대사 왕국장과 대사관 성원들,중국류학생들이 나와 있었다.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군중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환영 강택민≫이라고 웨치면서 손님들을 환영하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강택민주석과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곽백웅,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주임 왕강,대외련락부장 대병국,외사판공실 주임 류화추와 그밖의 수행원들이 왔다.

비행장에서는 강택민주석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은 21발의 례포가 울리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와 강택민주석께 조선어린이와 조선주재 중국대사관 녀성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은 환호하는 군중들의 앞을 지나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강택민주석은 평양도착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남위원장과 강택민주석이 함께 탄 자동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이날 시내 수십리 연도에서 각계층 시민들이 강택민주석과 그 일행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강택민총서기의 평양도착성명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강택민총서기는 3일 평양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초청으로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아름다운 축원을 보내는바입니다.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지난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근면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거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자랑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근 며채동안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조선식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면서 경제적난관을 극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 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이 새 세기에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래왕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압록강의 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로세대지도자들이 함께 마련하고 키워 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이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에서 끊임없이 심화되고 날이 갈수록 생기와 활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정초에 있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두차례의 성과적인 중국방문은 중조 두 당과 두 나라,두 인민사이의 친선을 공고발전시키고 심화시키였습니다.

이번 방문기간에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와 기타 조선지도간부들과 다시 만나 새 세기를 맞이한 중조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기타 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이번 방문이 중조 두 당과 두 나라,두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조를 가일층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며 조선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아울러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 활짝 피여 나고 더 풍만한 결실을 맺을것을 축원합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3일 저녁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정일**위원장께서 연설하시였다.

또한 강택민주석이 연설하시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을 비롯한 수행원들,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한 당 및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무력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강택민주석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이 3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강택민주석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강택민주석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께 인사를 드리고 그이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과 메달들,울음홀을 돌아 보았다.

강택민주석은 방문록에 글을 남겼다.





연회에서 하신 김정일위원장의 연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우리는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존경하는 강택민동지와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강택민동지는 세기의 교체와 더불어 조중친선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에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념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린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친선의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인민들은 언제나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 존경하는 강택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현대적이고 문명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협조를 지향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에 의하여 중국의 국제적지위와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조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강택민동지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연회에서 하신 강택민주석의 연설

강택민주석은 우리는 조선땅에 첫발을 들여 놓자마자 **김정일**총비서동지와 조선당,정부,군대의 지도간부들 그리고 수 많은 평양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중조친선의 뜨거운 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후에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와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에 **김정일**총비서동지는 또한 여기서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인민의 두터운 정에 차넘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중국당과 정부,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김정일**총비서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당과 정부,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1년전에 나는 **김일성**주석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은 나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지난 11년동안에 튼튼한 토대를 가진 중조친선은 세월과 력사의 시련을 이겨 내고 강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인류가 새 세기에 들어 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중조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등소평동지 그리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함께 키워 주신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더 활짝 피여 나고 중조친선의 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가일층 계승발전되고 있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도 환영을 표시할것입니다.

새 세기 중조 두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은 조선당,정부,인민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정신에 따라 새 세기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추진할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선적린방인 조선뿐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과 평화공존 5개원칙과 기타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에 기초하여 선린우호와 호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굳센 투지로 전진도상의 난관들을 이겨 내고 확고부동하게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식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 당신들이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며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추진하는데서 새롭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많은 동정과 리해,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성과는 참으로 쉽게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용감하며 슬기로운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을 발양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반드시 전진도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미래는 반드시 보다 더 아름다우며 조선반도는 반드시 보다 더 안정하고 번영하게 될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80년에 걸친 투쟁의 로정을 걸어 왔고 6,400여만명의 당원을 가진 당입니다.

력사는 중국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고 지난 50여년동안 중국이 커다란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없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중국은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다그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앞에는 현대화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3대 력사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언제나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부터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영원히 든든한 기반우에 서 있으려면 반드시 시종일관하게 중국의 선진적인 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세기에 리론혁신,제도혁신,과학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계속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진하면서 개척하고 창조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묶어 세우고 이끌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위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사이의 단독회담이 평양에서 3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정세를 호상 통보하고 두 당,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중국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 최진수가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전기침,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곽백웅,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왕강,대외련락부장 대병국,외사판공실 주임 류화추,조선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이 참가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우리들은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 **김정일**동지께 온 겨레와 인류가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환희로 들끓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된 1주년을 맞고 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나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이름으로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뜨거운 사랑과 의리로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실현시켜 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린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 하해같은 민족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하루빨리 사랑의 한품에 데려가시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끝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문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명기하시어 해결을 보시는 인간사랑의 대서사시적화폭을 펼쳐주시였다.

한꺼번에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된 것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세계사적대사변이다.

민족사의에 특기할 경사인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통해 우리 이남 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심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비전향장기수북송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이였다. 각계애국민중은 그들의 북송실현을 위해 투쟁도 많이 벌였고 방법도 여러가지로 해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서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볼수 있었다.

지난 8월 러시아방문시 레닌묘와 무명전사들의 묘를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 추모하시어 세인을 감동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은 탁월한 영도실력을 지니신 세계적인 위인이실뿐 아니라 숭고한 도덕의리와 뜨거운 인간사랑을 지니신 역사의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따사로운 조국의 품에 데려가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은정과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금방석에 앉혀놓고 그들이 세상만복을 다 누리도록 끊임없이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가슴뜨거운 소식들을 들을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칠천만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진정한 어버이의 품, 영원한 태양의 품이라는 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우리들은 비전향장기수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마음의 기둥으로 모시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에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신데 끝없이 고무되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범국민적인 반미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여 온 민족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에서 조국통일의 염원을 성취할 그날을 앞당기고야 말 것이다.

이땅에는 북으로 송환되기를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도 이미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처럼 어머니 조국의 품을 한없이 그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마땅히 본인의 희망과 요구대로 하루빨리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혁명적신념을 안고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해 나갈 것이다.

주체 90 (2001)년 9월 2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5호)

부시정부는 여전히 대북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미합의문들이 휴지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조미관계는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

부시정부가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시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부시정부는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부활시키며 대결과 군비경쟁의 신냉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산군복합체의 배후조종과 세계패권야욕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 확증하다시피 민중의 희생 위에 추진되는 반동적인 정책의 후과는 공황과 파국일 수밖에 없다. 자주성의 시대에 역행하는 패권정책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다. 이미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미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조미합의문대로 2003년까지 조선에 경수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선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화적 핵동력개발을 중단한 결과 수백억달러의 에너지손실, 경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경수로건설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합의문이 파기되면 그 세계적 범위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쟁과 파멸이냐 아니면 협력과 보상이냐 하는 선임정권의 딜레마에 또다시 봉착하고 있다. 조미전쟁의 파멸적 결과는 미국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유일한 출로는 미국이 조선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접수하며 해당한 경제손실을 보상하는 길뿐이다. 미국은 조미합의문에 밝혀진 대로 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조미외교를 수립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를 규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늦출수록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현재 부시정부는 ≪대북정책조정≫을 위한 시간을 달라며 조선에 애원하는 한편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는 오그랑수를 쓰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민족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역사에서 모처럼 마련된 통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따위의 반통일책동은 산산히 격파분쇄될 것이다.

부시정부는 파국과 고립을 재촉하는 신냉전전략, 미사일방어체계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조미합의문을 성근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통일분자들을 충동질하는 온갖 불순한 책동들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부시정부는 현명히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국가보안법폐지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전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6호)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번 회기 안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은 가능하지 않다. 현정권이 진실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서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민중, 반통일 위헌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를 불법시하며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반민족반통일악법이다. 또한 애국민주인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반민주파쇼악법이다. 그리고 헌법의 평화통일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조항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악법이다.

하기에 내외의 모든 민주인사, 양심인, 법학자들은 일치하게 지난기간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살아서 이 땅의 민주민권을 유린하고 있다. 수많은 애국투사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한총련과 범민련은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에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방문한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회담의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다. ≪민족민주혁명당≫이니 ≪백두청년회≫니 ≪단국대조직사건≫이니 하는 조작사건도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최근엔 8.15민족통일축전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대표들마저 구속하는 폭거까지 자행되었다.

현집권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이란 바로 이남사회의 성격과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현재 이남사회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집권자가 이회창한나라당, 김종필자민련이 반대하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폐지는 불가능하다며 내거는 이른바 ≪현실론≫은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남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사회에서 사실 대통령이 마음먹고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사업을 한다면 폐지분위기는 금방 고조될 것이다.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전격적 조치를 취해도 좋을 것이. 현집권자가 그 박식한 법률지식으로 위헌성을 설파하기만 하여도 국가보안법유지론자들의 처지는 당장 옹색해질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집권자가 여전히 미국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조선일보와 같은 반통일분자들에게 휘둘리며 민족과 손잡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용단을 못 내리는데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말로만 6.15공동선언이행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실천해보여야 할 것이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국회회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외 반통일세력들은 준동할 것이며 그 결과 장군님의 서울방문이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을 간청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현집권자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1일
서울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7호)

오늘 9월 1일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우리는 정기국회개원을 보면서 국회내에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정당도 국회의원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자주민주통일은 한국사회변혁의 기본좌표이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을 핵심과제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만이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나 한국민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진보적≫이라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당론에 끌려다니며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민중은 자신의 대표자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한다. 그들이 국회에서 자주민주통일을 당당히 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진보정당을 건설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인 혁신정당이다. 또한 진보정당은 민족민주운동대오가 제도정치권에 파견하는 정치적 별동대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가장 적합한 주체세력이다.

진보정당은 변혁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한국민중을 자주의식화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진보정당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건설될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은 범국민반미항전의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가며 통일정세가 도래함에 따라 진보정당의 역할은 비약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이념과 전국적 대중지반을 가지고 있다. 그 정치적 잠재력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바 있다. 향후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선명히 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다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연합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진보정당건설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전면적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총련도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일부 지역총련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이 이미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조건에서 전국연합과 한총련마저 가입한다면 향후 정세는 적지 않게 달라질 것이다. 민족민주운동권의 정치세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의 양대 선거국면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도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운동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파간 분열상도 상당히 극복되리라 전망된다.

우리 민중이 위력한 진보정당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변시킬 수 있었던 역사는 여러번 있었다.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조국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격동적이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는 무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1일
서울

진보정당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은 하나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사건≫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8호)

아직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북대표 7인은 여전히 수감상태이며 이회창패당과 조선일보의 반북광란극도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김종필패거리들까지 가세해서 통일부장관까지 해임되는 상황이다.

이 2001년판 마녀사냥극에 광분하는 반통일분자치고 조국통일3대헌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자는 없다. 무식하면 겁이 없다는 말처럼 잘 모르니까 함부로 미쳐날뛰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박수를 보냈던 모든 세력은 이 선언과 조국통일3대헌장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사실상 하나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그리고 자주적인 중립국가를 지향하며 전민족의 대단결을 호소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민족자주, 통일지향, 민족단합을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근본이 일치한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연방제를 직접 명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뿐이다.

상이한 두 체제를 넘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는 연방제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기치와 완전히 일치한다. 6.15공동선언은 아예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이룩하자고 명시하고 있다. 합의문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고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궁극적인 1국가 연방제도 머지 않아 건설될 것이다.

지난 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환호하지 않은 정치인, 언론은 없다. 있다면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쳤다는 인간추물 이회창과 천하의 매문모략지 조선일보 뿐이다. 그런데 오늘 그 정치인, 언론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사건≫에 열을 올리며 마녀사냥극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막힌 태도변화인가.

변수가 있다면 미국정권이 클린턴에서 부시로 넘어가고 부시정부가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부시정부의 조종하에 이회창패당, 조선일보, 자민련패거리들이 6.15공동선언파탄책동에 발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대중정권이 중심을 못 잡고 여기에 심히 휘둘리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통일대세에 역행하며 반북모략과 마녀사냥에 미쳐 날뛰는 반통일분자들이 민족의 지지를 받을 리 없다. 사실 내외 반통일세력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사건≫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6.15공동선언지지세력과 내외 반통일세력간의 전선은 보다 선명해졌다. 연방제논의가 활발해지고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이 사건은 통일애국세력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김대중정권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정권은 오늘 민족이냐 미국이냐, 6.15공동선언이행이냐 그 파기냐, 연방제냐 분열이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김대중정권이 민족과 6.15공동선언이행, 연방제를 선택한다면 전체 민족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김대중정권이 미국과 6.15공동선언파기, 분열을 선택한다면 그순간 그동안 반정부투쟁을 자제하던 애국적 민주세력은 정권퇴진투쟁에 총분기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둘러싸고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세만 보더라도 그 중간의 절충적 결정이란 있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마침 어제 이북이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현정권은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같은 동포와 굳게 단결하며 내외 반통일세력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장군님의 서울방문을 위해 결정적으로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조국통일3대헌장이자 6.15공동선언이며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정권의 생명선으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3일
서울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파멸

- 고이즈미일본총리의 야스구니신사참배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9호)

고이즈미일본총리가 야수구니신사를 끝내 참배하였다. 일본총리가 도쿄를 비롯한 특급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지금 역사교과서왜곡을 넘어 신사참배의 단계마저 뛰어넘었다. 정거장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인류에 미증유의 시련과 상처를 남겨준 2차세계대전이 끝난지 채 1세기도 안되어 일본군국주의는 완전히 부활하였다. 미 트루만정권의 냉전정책과 6.25전쟁으로 죽음직전에서 소생한 일본군국주의가 마침내 인류와 역사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독점자본이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팽창으로 공황을 극복하려는 것은 법칙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파국을 면치 못하는 것도 법칙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정확히 그 길로 가고 있다.

한편 경제강국이 군사강국을 꿈꾸며 핵무장화로 치닫는 것도 법칙이다. 일본은 핵무기의 3대 요소인 플루토늄과 운반수단, 뇌관을 다 갖추고 있으며 정책결정만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일본은 90년대 내내 있지도 않은 조선의 이른바 ≪미사일위협≫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 일본은 이북의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우겨대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우익깡패들이 총련간부를 살해하고 지부를 방화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나라도 일본이다.

부활한 일본군국주의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첫째 대상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미 미일의 이중식민지인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은 다르다. 항일의 명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건국하신 조선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사상과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은 오늘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1천만의 총폭탄대오와 다단계로케트로 준비된 조선은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신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며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결코 조선의 상대가 될 수 없다. 그 무슨 전역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도 조선과의 대결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일본열도는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전쟁이자 파멸인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범죄적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며 응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야스구니신사참배를 참회하며 왜곡교과서검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온갖 군국주의정책을 폐기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일본위정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진보세력, 양심세력이 반군국주의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확신한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9월 3일
서울



북남당국대화의 재개를 제의

조평통 부위원장 통일부장관에게 통지문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림동옥은 2일 북남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림동원에게 보냈다.

통지문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림동원귀하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전반적인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추진하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북과 남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민족의 념원을 반영한 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어이 실천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은 그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의에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림동옥
주체90(2001)년 9월 2일

남측 추진본부, 12~14일 실무접촉 제의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는 30일 오후 2시 천도교 대강당에서 ≪2001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를 갖고 어제 북측의 실무협의 제안에 대해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문을 오늘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어제(29일) 이같이 결정하고 이후 재 논의를 통해 아직 미결정된 실무접촉 장소 등 실무협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본부의 공식적 일정으로 마지막이 될 이번 보고대회에서 이돈명 추진본부 상임본부장은 ≪6.15정상회담의 정신은 ≪화해와 협력으로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냐≫며 평양행사의 성과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힘을 합쳐 앞으로 헤쳐나가자고 인사말을 맺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추진본부는 ≪평양체류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은 6.15선언 실천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확대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조성우(민화협)사무총장의 공동보도문의 보고와 각부문과 단체별 대표들의 합의내용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통일연대의 한상렬상임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과 추진본부, 그리고 통일연대 성원들께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의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등 3자연대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열렸으나 통일연대 소속 회원들의 많이 참석함으로써 이런 우려들이 당분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진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종수신부는 그간의 과로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30

2001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 결의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는 그동안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6.15 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8.15 광복 56돌을 맞아 서울과 평양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으며 평양행사에는 337명의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추진본부가 ≪평양체류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모든 일들은 우리 대표단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평양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추진본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추진본부 대표단이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은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쩌면 누군가 한번은 겪어야 할 시행착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행착오에 대한 과도한 반응보다는 그 성과를 기조로 남남대화와 남북교류르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일시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이 만나 6.15 선언 실천 의지를 서로 확인하였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시키고 확대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축전의 참가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6.15선언에서 언급되지 못한 평화정착의 문제를 진전시키고, 당국간 회담을 지원하는 민간의 역할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남북공동전시회 개최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평양에서 발생한 일부 지엽적인 사건들을 확대하여 민간차원의 교류가 거둔 성과마저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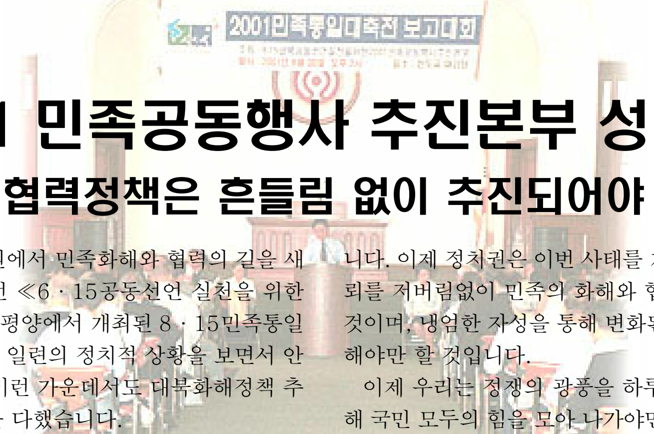
둘째, 정부당국은 평양행사 참가 이후 구속된 7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평양행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보다 민간의 양식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서 임동원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시행착오를 빌미로 해서 장관 퇴진 등의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민족문제를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넷째, 지난 8월 28일 발표된 북측 민화협의 각 부문, 계층별 논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 민화협과의 실무접촉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보고대회 참가자 일동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꼭같은 무게로 느끼면서 앞으로 보다 성숙한 국민적 통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1. 8. 30
2001 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성명서

화해 협력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광복 56돌을 맞이하여 민간 차원에서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 출범했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남북공동행사 추진본부≫는 평양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개된 일련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런 가운데서도 대북화해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주무장관인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추진본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관철은 이번 평양행사를 통해 민간교류의 신기원을 마련했던 정책적 성과를 일체 외면하고, 오로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대북화해정책의 혼란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장관 해임 요구가 돌출했을 때 추진본부에 참여했던 7대 종단이 거듭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자제를 당부한 것은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와 남북관계가 여야를 초월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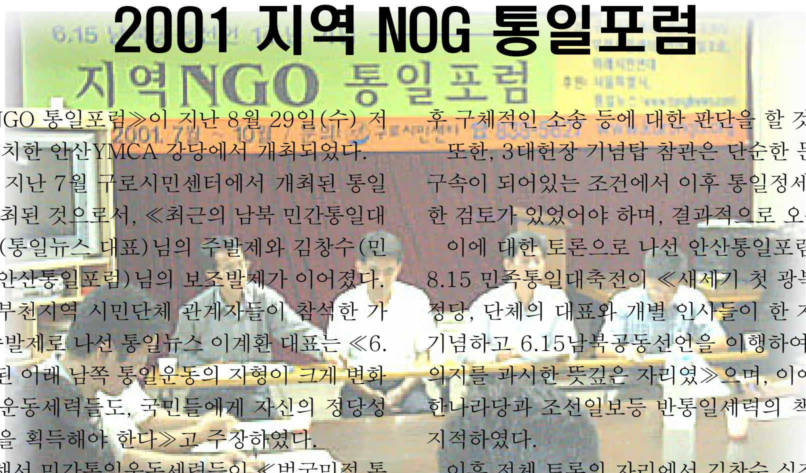
정치권은 추진본부와 방북단 대표들이 대북화해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심각하게 우려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환골탈태의 새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신뢰를 저버림없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냉엄한 자성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쟁의 광풍을 하루빨리 벗어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미 북한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성의껏 취해 나갈 뜻을 표명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당국간 회담 재개를 제의했습니다. 이는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민간교류와 당국간 대화를 연결짓는 신뢰의 가교가 놓여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 건의 파문의 멍에를 벗고 여야를 초월하여 민족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추진본부가 당면하고 있는 실무협의 및 각 부문별 교류 성과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사회의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사태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7천만 겨레가 한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1년 9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2001 지역 NOG 통일포럼



제 2회 ≪2001 지역 NGO 통일포럼≫이 지난 8월 29일(수) 저녁 8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YMCA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NGO 통일포럼은 지난 7월 구로시민센터에서 개최된 통일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최근의 남북 민간통일대회≫라는 주제로, 이계환(통일뉴스 대표)님의 주발제와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 이경원(안산통일포럼)님의 보조발제가 이어졌다.

20여명의 안산, 구로, 부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 주발제로 나선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남쪽 통일운동의 지형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제는 통일운동세력들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민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계환 대표는 이를 위해서 민간통일운동세력들이 ≪범국민적 통일운동 상설체≫를 건설하고, 이후 각 조직별 특색있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현재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그 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보조발제로 나선 민화협 김창수 정책실장은, 이북의 태도가 작년 조선노동당 건설 55주년 기념식에 참관으로 나설 때와 상당히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현재 조선일보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를 기사화한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이후 구체적인 소송 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대헌장 기념탑 참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언론사주가 구속이 되어있는 조건에서 이후 통일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오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나선 안산통일포럼의 이경원 분과장은 올해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새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남, 북, 해외의 정당, 단체의 대표와 개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8.15광복절을 기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과시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등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전체 토론의 자리에서 김창수 실장은 현재 구속된 7인의 방북단과 관련하여 ≪범민련이야말로 희생양이며, 나는 이후에 범민련 성원이 아니기에 범민련을 변호하는 글을 언론에 게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1 지역 NGO 통일포럼≫은 구로시민센터 등 5개의 지역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뉴스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월례포럼이며 다음 모임은 9월 26일에 부천시민센터에서 지역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통일뉴스 2001-09-04
홍상민 통신원(안산통일포럼 사무국장)

민화협 논평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제의를 환영하며

우리는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민간급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당국간 대화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온 것이다.

우리는 지난 6.15, 8.15 남북공동행사 과정에서 ≪민간의 공동행사가 냉냉한 남북관계 변화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북측의 약속을 주목해 왔다.

이번 제의가 그간의 금강산 6.15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북의 통지문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려는 온겨레의 의지가 ≪평양에서 진행된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더욱 뚜렷이 증명되었다고 언급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의 제의를 계기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내외의 복잡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역시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정치인과 언론은 통일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당국간 대화를 국민적 합의 위에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3일

민화협 성명

화해협력정책은 가장 합리적인 통일정책이다

오늘 우리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로 나아가려는 온 국민의 희원(希願)이 상처받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화해 · 협력은 우리 민족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통일정책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추진하면서 북측이 ≪민족공동행사가 냉랭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힘있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왔음을 주목해왔다. 북측은 8월 28일자 민화협 대변인 성명에서 각 부문 단체간 교류의 활성화를 제안하였고, 9월 2일자 조평통 부위원장 명의의 전문을 통해서는 6개월 이상 중단된 당국자 회담의 재개를 제의해왔다. 일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한대로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는 구체적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8.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나타난 일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빌미로 하여 대북정책 주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동하고 모든 우방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한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화해협력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화해와 공영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유지만이 남북관계가 정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당략의 희생물로 삼은 정치권의 자성과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참관기] 잊지못할 아름다운 평양의 밤

안녕하세요. 저는 전농 강원도연맹 총무부장 김덕수라고 합니다. 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여한 남측대표단중 1인입니다. 성과있게 끝난 평양행사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참관기를 띄웁니다.

8월15일 1시경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을 보고 꿈을 꾸는



듯 싶었다. TV에서나 봄직한 빨간색 바탕의 흰글씨로 ≪남측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문구와 **김일성**주석의 초상화를 보면서 정말 평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평양에 왔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몰래 볼살을 꼬집어 보았다. 순간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리고, 우리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나와있는 ≪꽃술부대≫ 환영단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남측 대표단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데, 비행기가 와야 말이죠, 비행기 타이어가 터져 못오시는줄 알았습니다. 우리인민들이 새벽부터 나와 기다렸습니다.≫라는 안내원 선생의 말씀처럼, 어린이들은 땀을 연신 훔쳐대며 손을 흔들었고, 새벽부터 단장하고 나왔을 여성들은 화장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연신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연호하면서 남측대표단을 환영해주는 그들의 모습속에서 감동과 고마움이 밀려왔다.

이북에서 마련해준 전세버스를 타고 순안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가는길에 지나가는 인민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연신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은 너무도 정겨워 보였다.

≪우리인민들은 외국인들에겐 절대 손 흔들지 않습니다. 남측 대표단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라는 이북 안내원선생의 말을 들으면서 이사회의 아름다움을 엿볼수 있었다.

평양의 거리는 단아하고 깨끗하였다. 서울의 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버스나 전차 정류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지만, 시내 거리는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도시처럼 한가로왔다.

우리 버스를 알아보고 연신 손흔드는 사람들! 그에 답하여 손흔드는 남측 대표단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갈라져 살면 안되는구나! 정겨움과 반가움으로 눈물이 나올것만 같았다.

평양시 외곽에 쫙 펼쳐진 들녘은 호남벌판을 보는 것처럼 풍성해 보였다. 밭주곡인 옥수수와 벼가 고개를 숙인채 우리를 환영해 주었으며, ≪지난 겨울에 전농에서 보내준 못자리용 비닐덕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라는 북측 안내원의 말은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다.

점심식사를 한후 남측대표단내에서는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북측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탑에서 개막식을 강행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참석할 수 없다는 측과 참가하자는 측으로 논의가 팽팽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북측 안내원 선생들은 해외동포 대표단과 조선 인민들이 남측대표단만을 기다리며 몇시간째 서있다고 하며 갈 것을 요청하였다. 각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어기면 안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고려호텔 현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개막식 참가가 아니라 참관은 괜찮지 않겠느냐?≫ ≪북인민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손님된 입장으로 주인의 입장을 존중해줘야지, 논의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타고 일부사람들이 출발하였다.

10여분이 안되어 도착한 곳은 저멀리 3대헌장탑이 보이고, 좌우로 꽃술을 들고, 중간중간에 북예술단원들의 공연이 있었으며, 연신 우리를 향해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외치는 모습에서 ≪이렇게 만나면 쉬운걸 왜 그렇게 논쟁만 하고 있었는지≫하는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수만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 5시간째 이렇게 서있었다니, 그런데도 우리들은 논의를 핑계로 북인민들의 성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한번 미안함이 밀려들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행사장에는 북과 해외동포들이 행사장 중간에 자리잡고 남측 대표단들은 참관자격으로 한쪽 귀퉁이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주석단 자리에도 한줄을 아예 빼서 빈자리를 없애 주었다.

그야말로 남측 대표단들은 개막식 참가가 아닌 참관이었다.

폐막식또한 마찬가지로 평양 시내관람을 마치고 난 이후 3대 헌장 기념탑밑에 갔을때에는 행사가 끝나고 수천명의 남녀 청춘들이 어우러지는 무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역시 북의 배려라고 판단되었다.

이렇듯 남측 대표단의 옥신각신속에 북측의 세심한 배려로 개.폐막식 행사에 참가가 아닌 참관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남한 당국이 방북승인의 이유는 각서여부를 떠나서 민족통일대축전참가와 민간교류를 인정하여 남측대표단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방북대표단이 이북 관광을 간것도 아니며,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참가를 위해 340여명이 방북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렇듯 대규모 방북단이 올필요가 있었겠는가? 개.폐막식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행사를 주최한 북측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통일을 하자는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장소를 **김일성**광장이나, 주체사상탑앞에서 하면 남측정부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통일을 원하는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라는 북측의 안내원선생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개.폐막식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개막식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연설이나 행동이 없었다. 대회사와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연설, 그리고 민요공연이 전부였다. 이북

의 민요공연은 들으면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는 가락이었다. 특히 나 ≪노들강변≫을 멋들어지게 뽑을때면, 절로 어깨춤이 나와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평양에서의 첫째날, 둘째날은 이렇듯 개.폐막식 참여 문제로 개운치가 않았다. 또한 남쪽에서 언론들이 다시 반공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북단을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느니, 00신문에서는 6.15공동선언마저 부정하고 나섰다느니 하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아~ 통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가슴의 답답함을 묻어두고 북에서 마련한 일정을 최대한 지키려는 마음에서 셋째날 부터는 다시 방북단 전원이 의기투합하여 평양시내, 동명왕릉, 백두산, 묘향산등지로 관람을 하였다.(지면관계상 짧게 서술함을 양해바랍니다.)

평양시내를 나설때면 나를 포함한 방북단은 손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옆사람과 제대로 이야기도 못나눌 지경이었다. 남측대표단을 실은 버스가 지나갈 때 마다 항상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하는 북녘 인민들! 6박7일동안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는데, 손흔드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버렸다. 김포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남쪽 사람들을 보고 무심결에 손을 흔들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냉대함, 의아심등등으로 인해 손이 부끄러워졌다.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관람관을 방문했었다. 국제친선관람관은 故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 각나라로부터 선물받은 것을 전시해놓은 곳인데, 선물 가지수가 무려 21만4093점이 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안내해주는 해설강사의 비유가 참 재미있었다. ≪미국의 전대통령 클린턴은 자신의 퇴임식때 임기동안 선물로 받은 것을 모두 챙겨갔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받은 선물이 자신이 것이 아니고 우리 인민들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인민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전시해놓으셨습니다. 클린턴대통령과 비교하면, 얼마나 도덕적 풍모가 높으신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람관에서는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다. 관람관 안내코스 맨끝부분에는 남쪽 인사들이 보낸 선물도 전시되어 있었다. 재벌그룹회장들, 김종필총재를 비롯한 정계인사들이 보낸 선물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외국에서 보낸 선물들은 대부분이 수공예로 몇 년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대부분인 반면, 남쪽에서 보낸 선물들은 자동차나 침대, TV, 은수저등등 공산품이 대부분이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생각만 해도 가슴떨리는 곳이었다. 백두산을 간다니! 내가 백두산을 갈수 있다니!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에서 제공한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삼지연공항까지 갔다. 그리고 1시간 30분여 걸쳐 차를 타고 이동한곳은 백두산 천지연...

말로는 다표현하지 못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동안 남쪽에서 봐왔던 모든 산들이 기억속에서 사라지면서 백두산과 천지가 내머리속을 꽉 채우기 시작했다.

청명한 하늘아래 푸르디 푸른 맑은 물!! 마음넉넉하게 천지를 포옹하고 있는 각종 봉오리들! 광활함... 표현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표현하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다. 민족의 정기가 살아숨쉰다는 것이 이런 감정일까? 아 이래서 백두산이라 불리우는구나?

해설강사의 말로는 그동안 백두산은 2744m였는데 최근에 다시 측정한 결과 장군봉을 최고봉으로 하여 2750m라고 한다. 장군봉, 향도봉, 쌍무지개봉, 백안봉, 차일봉,독명봉, 백운봉, 천석봉, 옥설봉, 제비봉, 객원봉, 단결봉, 해발봉, 비루봉이 감싸고 있는 천지연! 그 둘레만도 14.4km라고 하니 그 웅장함의 감동은 평생을 두고라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안내해주던 누님이 있었다. 이름은 곽용숙이며, 34살의 9살난 아들이 있었다. 6박7일 기간 내내 함께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으며,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 주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아마 남쪽에서 **김일성**주석 밀랍인형 앞에서 대성통곡또는 흐느낀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 내가 볼때는 이 누님을 보고 그랬던 것 같다.

어렸을 때 **김일성**주석이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꽃다발을 전해준적이 있다면서 계속 울먹이는 누님을 달래주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곽용숙 누님은 9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깐, 대답이 아주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산전산후 휴가가 5달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한명 더 낳을려면 5개월을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5개월동안 쉴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민들이 아직도 덜끝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젊은니깐, 조금 더있다 생각해봐야지≫

누님의 말속에서 북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버스조장을 맡으면서 차에 탈때마다 인원이 제대로 맞지 않아 약간의 짜증을 부릴때면, 곽용숙누님은 ≪내가 미워요? 덕수선생!≫이라며 살며시 웃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곳을 자세하게 안내해주면서 나를 꼼꼼하게 챙겨 주는 자상한 누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회가 끝난뒤 헤어지기가 아쉬워 두손을 꼭잡고, ≪평양의 밤≫노래를 불러주던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올 때 ≪다음에는 결혼해서 꼭 다시 만나요≫ ≪눈물 보이지 말고 웃으면서 가라!≫ ≪우는 얼굴은 밉습니다.≫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려면, 내려가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라고 등떠밀던 누님! 내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 울것만 같았는데,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을려고 뒤돌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척 했다.

≪덕수선생이 자꾸 울려고 하면, 나도 눈물이 나오니깐, 빨리빨리 가시라요≫하면서 끝까지 울음을 참으시던 누님!

통일된 조국에서 이웃집 누님처럼 편안하게 볼날이 얼마 안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환송해주기 위해 서있는 꽃술을 든 사람들속으로 나갔다.

평양에 도착할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평양시민들이 우리를 환송하기위해 나와있었다. 헤어짐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 소년소녀들이 연신 ≪잘가세요≫를 외치면서 우는 모습들! 남측대표단 모두는 그들의 모습에서 흐느끼고, 끌어안고, 함께 소리치며 헤어지는 안타까움을 달랬다.

그때 모기자 한명이 우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저런 연극을 시킬건가?≫라면서 비아냥 거리자 옆에 있던 남측대표단중 한분의 '남쪽에서 어린아이들을 아무리 동원하고 연극을 시켜봐라!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외치면서 울수 있는지!!' 말씀속에서 북의 어린이들의 애절함을 느낄수 있었으며, 이런 어린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통일은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땅의 호전분자들이 미군과 함께 범죄적인 전쟁연습을 연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26일

사회자 : 이시간엔 이땅의 호전분자들이 미군과 함께 범죄적인 전쟁연습을 연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방송국 윤정원씨와 나누는 얘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당국자들이 요즘 미군과 함께 어떤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지 그 상황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윤정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동해안의 주요 항만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미명아래 민, 관, 군합동항만방어훈련이 해운기상대주관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함대 고속정편대와 레이다기지 등 해군주력과 해경, 관공서 등이 대거 참여했어요. 그리고 육군2군사령부는 지난 22일 대구구치소에서 적침투에 대비한다면서 민, 관, 군합동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군사령부예하 화학중대와 육군 50사단 기동타격대대, 화학대 장병 500여명과 지역관공서와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공군 38전투비행대는 한미연합화생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훈련에는 38전대 장병들을 비롯해 전북 군산시 소방서와 관서와 가족, 미군8전투비행단, 소방대, 미육군 23화학대대 267중대, 육군 35사단 화학대 장병들도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들은 모두 지금 발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을지포커스렌즈≫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일환들이죠. 이번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훈련은 대량하게 그리고 더욱 모험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내외 국민들을 몹시 분격케하고 있어요.

사회자 : 이번 ≪을지포커스렌즈≫합동훈련은 종전과 다른 일련의 특징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한반도에서의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구실하에 지난 수십년동안 매해 벌여온 한미합동군사훈련에는 한국의 육해공군 무력과 행정기관, 민간인들, 한국과 일본, 괌도 미국본토에 있는 방대한 미군병력이 동원되곤 했는데요. 훈련내용도 상륙작전, 도하작전과 같은 공격적인 것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는 종전과 같은 공격작전연습과 함께 그 누구에 대한 비루스공격, 해킹을 위한 사이버전모이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는게 특징적이라 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예 들었습니다만 화생방훈련이다 뭐다하며 한국 민, 관, 군훈련에 미군산하 소방대와 화학대대를 동원시켜 진행하는 것도 종전에는 없던 양상이라고 봅니다.

한미군당국자들은 이 전쟁연습을 연례적인 탁상지휘소훈련이라고 광고하지만 그 성격과 내용, 또 규모에 있어서 철저히 북침을 위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인거죠.

사회자 : 네, 그래요. 미국은 이같은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벌임으로써 이 자들이 떠들어대는 북미대화가 가짜였고 오직 이북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흉악한 기도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부시미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방지에 대해 적지 않게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면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계속 증강하는 한편 국군의 무장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각종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건 그걸 실증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하면서 북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막상 대화를 했댔자 아무런 열매도 맺을수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명백하죠. 칼을 휘둘러대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건 타방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죠.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그들이 이북과의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힘으로 북을 압살하려한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호전집단이 미국과 함께 이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민족의 통일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이북과의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봐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우리 민족의 통일열의는 더욱 뜨겁게 가열됐죠. 특히 지난 8.15에 즈음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겨레의 굳센 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했어요. 지금 우리 온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과정이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힘있게 추진돼서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도전해 한국호전집단이 미국과 함께 이북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건 민족의 통일열기를 냉각시키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북침전쟁책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남북관계를 공동선언채택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며 나아가서 미제와 야합해서 이북을 해치워보려는 범죄적야망의 집중적표현인 겁니다.

사회자 : 우리는 한미호전집단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책동이 이회창을 필두로 하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이 각계의 대표들의 8.15평양통일축전참가를 두고 시비하면서 일부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것도 스쳐 지날수 없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한쪽에선 내외호전세력들이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차단하려고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을때 다른 한쪽에서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이 평양통일행사참석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처형해야한다고 떠들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부정해 나서는 것과 같은 반민족반통일범죄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과정을 파괴하고 이북을 힘으로 압살할 것을 꾀하는 미국의 전략과 지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반통일책동의 일환인거죠. 대결과 대화, 전쟁과 통일은 결코 양립될수 없지 않습니까.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며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남북관계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대매국노, 반역의 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망동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안에는 이런 역도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면서 겨레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고 광분하는 반통일호전세력들은 하루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침략자들을 단죄하며 그들을 하루빨리 이땅에서 몰아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자주적평화통일의지는 철벽하고 누구든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꺾을수 없어요. 미제와 이땅의 반통일호전세력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그것은 도리어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더욱 굳세게 할겁니다. 한미호전집단들은 이것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북침을 노린 범죄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반통일범죄행위들을 일체 당장 그만두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9월 1일자

오는 9월8일은 미국이 저들의 침략군을 이 땅에 상륙시킨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8.15광복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포악한 군정통치로 우리 민중의 새 조국건설과 통일지향을 가혹하게 탄압했으며 망국적인 5.10단선을 통해 식민지괴뢰정부를 조작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 목적과 국익을 위해 반공대결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미국은 이북까지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6.25북침전쟁을 일으켰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후에도 주한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켜놓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계속했다. 특히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오늘도 ≪북조선위협≫을 구실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신형전쟁장비들을 대량 끌어들이고 있으며 전쟁연습소동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되돌려 세우며 한국에 미제침략군을 계속 못박아두기 위한 계획적 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이 땅에 그대로 두려는 것은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세계가 자주와 평화의 물결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민족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용납하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한국영구강점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강점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어느 때이건 이북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며 한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바로 미국의 한국영구강점과 전쟁정책수행을 위한 도구이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전세계적 범위에서 더 크게 울려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부시행정부는 한국강점 미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절박한 요구이다.

현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계속하는 속에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 민족의 대단결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제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국통일문제에 끼여들 구실이 없다.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이 무조건 당장 물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반미자주화물결이 세차게 일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구실이란 이제 더 이상 없다.

소련의 ≪남하를 견제≫하고 이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구실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 소련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남과 북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다짐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무조건 당장 철수해야 한다.

지금 각계 애국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의 한국강점유지책동과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책동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기본장애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반미는 애국이고 친미는 매국이다.

모두다 6.15공동선언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항전에 나서자.

≪석학≫



[미군철거 1인 시위]
단일 깃발 흔들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E-mail : onekorea21@onekorea.net
Homepage : http://www.onekorea.net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주미철 1인 시위가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소 : 부산 미 하얄리아 부대 정문
△시간 : 늦은 4시30분~6시. 1시간 30분 진행.
△진행 : 주미철 부산본부 리인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주미철 부산본부 사무국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13을 마지막으로 31일까지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낸 관계로 1인 시위와 수요집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월의 첫 포문을 여신 분은 주미철본 공동의장이자 부산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리인수 동지입니다.

오후 4시30분부터 6시5분까지 진행된 주미철 1인 시위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미 하얄리아 부대 정문 앞에 도착, 시작하자마자 부산시 경찰청 직원이 반갑다고(?) 뛰어오며 ≪그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라고 물어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미군 놈들도 지들이 언제 봤다고 ≪하이, 하이≫ 하면서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리 인수 대표는 오른 손에 단일기를 들고 '이놈들 내가 왔다' 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고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드는 분, 담배를 피우다 말고 얼른 손을 흔드는 분, 쌍라이트를 번쩍번쩍하며 격려를 해주시는 버스 기사 분, ≪야~~~≫ 고함을 지르며 화이팅을 외치시는 분들 등 반응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창문을 열고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적마다 리인수 대표는 단일기를 힘차게 흔들며 답례를 했습니다. 다른 1인 시위 때와 달리 단일기를 들고 나와서 하니 그림(!)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미군 놈들도 그 의미를 잘 아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지난번과 달리 특징적인 것은 오늘은 고급승용차에서도 상당히 많이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기로 보통 손을 흔드는 사람들은 소형 승용차 운전자나 회사 통근버스, 학원 차량, 택시, 버스 기사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듯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

오늘 고급 승용차에서 손을 많이 흔드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많이 사람들이 하나 하나 바뀌어 가긴 가는 모양입니다.

언론에서 방북 관련하여 부정적인 소식을 하도 많이 전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나왔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아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를 하신 리인수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응원의 함성을 질러줄 때, 정말 온갖 스트레스가 다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미군철거 1인 시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는 지금도 약간 부담스러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리 대표 님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하니 정말 이상한 ≪성격@~≫ 인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연신 단일기를 흔들고 있는 리인수 대표의 모습에서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군철거의 날이 가까워져 옴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하얄리아 부대 미군 놈들아 당장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거하는 해 2001. 9. 3.
[기록 - 주미철 부산본부 사무국]

시민사회단체, 용산미군기지 반환 투쟁 활발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서울연합)은 3일 낮 2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중원 서울연합 집행위원장은 ≪분단의 원흉, 범죄와 학살의 진범인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결정적 투쟁은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는 것이며 이 기지를 민족공원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중원 집행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환경, 교육, 주택 등의 사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연합은 회원들과의 회의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중 용산미군기지 반환 투쟁을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으로 인해 6.15남북공동선언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들 스스로가 공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연합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연합은 아직 타 조직과의 연대는 계획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많다.

매주 수요일에는 반미여성회(준)가, 금요일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그리고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민주노동당, 민족화해통일협의회, 매향리 범대책위원회, MD공대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들이 줄을 잇자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다 1년동안 집회신고를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10일 반미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마찰을 피하기로 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생존권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공동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것은 다소 어렵겠지만 끈기를 갖고 연대연합을 모색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6.15공동선언 발표와 매향리 폭격장 투쟁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 힘입어 시민사회단체들 내 반미열기는 매우 높아졌다. 또한 녹사평역 기름유출, 한강 독극물 방류 등 주한미군의 범죄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과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안에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등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하나도 없으며 주한미군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미국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용산미군기지 반환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자주적인 남북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대표는 그 의미를 설명했다.

통일뉴스 2001-09-03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MD저지 공대위, ≪전투기 강매 규탄≫ 연일시위



종로 한미은행 본점앞 건물은 최근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건물 18층에 들어선 미국 군수산업체인 ≪보잉사≫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올초 ≪NMD · 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MD 공대위)≫구성하고 ≪미국 보잉사가 한국에 자사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7월부터 지금까지 1인시위를 벌이는 등의 규탄집회를 연일 열고 있다.

31일은 전국연합의 자주통일국장 정연욱(33)씨의 1인시위가 진행됐다. 정씨는 ≪죽음의 무기 상인 보잉사는 한국지사 폐쇄하고 이 땅을 떠나라≫라는 피켓을 몸에 메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대를 이용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보잉사, 록히드마틴사 등의 미 군수산업체들의 MD추진과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해 홍보했다.

보잉사는 올해초 정부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에 자사 기종인 F-15KM 전투기 판매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D공대위는 10월 미 부시대통령의 방한까지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다음주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1인시위가 계속된다.

한편, 지난 7월 26일에는 매향리주민들을 비롯한 MD공대위 회원들이 여의도 6 · 3빌딩에 입주해 있는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해 ≪매향리 사격장을 관리하고 MD추진을 부추기는 죽음의 무기상인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2001-08-31

이준하 기자 oldunip@hanmail.net





북남대화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한나라당≫을 규탄

조평통 서기국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우리측이 9월 2일 남조선≪통일부장관≫에게 보낸 북남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시샘을 하면서 삐뚤어 진 소리를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보도 제810호를 3일에 발표하였다.

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0호

이미 알려 진 바와 같이 우리 측은 9월 2일 남조선≪통일부장관≫에게 북남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우리측의 이 조치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애국적이며 건설적인 제의이며 특히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220여개 정당,단체들과 우리측의 많은 정당,단체들이 북,남사이에 민간단체들뿐아니라 당국도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한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의 이번 제의는 남측에 전달되고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한나라당≫의 반통일세력들만이 우리측의 이 제의를 시샘을 하면서 삐뚤어 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지향적인 대화제의가 남조선의 어느 일개 장관을 구출하기 위한 ≪의혹이 짙다≫느니,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느니 하고 험담을 늘어 놓았다.

정당이라는것이 통일대화제의가 국사에 관한 문제인지,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지,일개 장관에 관한 문제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것은 그들의 저속한 수준을 드러내보일뿐이다.

민족의 대의를 저들의 협소한 당리당략에 리용하는것은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속통이 좁고 정치도 모르고 무식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극히 망신스러운 처사이다.

≪한나라당≫은 민족앞에 자꾸 죄를 짓지 않는것이 좋다.

우리는 이런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는것을 단호히 경고한다.



8.15에 즈음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일부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28~29, 31일

윤정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안당국은 지난 24일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김규철씨 등 평양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습니다. 김규철씨 등 범민련남측본부 간부들에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단체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가 그리고 강교수에게는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가 각각 적용이 됐어요.

영장기록에 따르면 김규철씨 등 범민련간부 6명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연석회의에 참가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개정했고 그중 전상봉씨는 3월 범민련 일본공동사무국을 통해 이북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팩스로 문서를 주고 받으며 남북청년통일대토론회 개최를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강정구교수는 만경대방명록에 서명한 외에 방북 직전까지 서울대 등지에서 열린 주체사상토론회 등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 각계가 항의, 규탄하면서 구속자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각계가 항의, 규탄하는 그 상황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윤정원 :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북단 일부의 개폐막식참가는 돌출행동이 아니라 자칫 무산될뻔 했던 방북일정과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며 돌출행동 등을 문제삼아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면 중앙정보부장 방북이후 북을 방문한 각계 인사들의 행적도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을 했고 경실련 통일협회는 24일에 낸 성명에서 이번 8.15남북공동행사가 분단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의 행동을 문제삼아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한겨레≫는 인터넷을 통해 ≪방북대표단의 일부인사들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더구나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후 개, 폐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범민련관계자들의 회합, 통신이나 잠입, 탈출죄적용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자 : 변호인단도 구속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변호인단은 범민련 간부들이 범민련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범민련의 강령, 규약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주장했고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한 개폐막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측이 행사일정으로 알렸고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강정구교수가 작성한 만경대방명록의 문구에 대해서는 확대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며 강교수의 구속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한편 통일연대 소속 대학생 300여명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검찰이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 일부를 구속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에서 학생들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남측본부 대표 6명을 구속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구속자들의 석방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일부정당과 보수언론이 색깔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이같은 주장은 천백번 정당한 것으로써 공안당국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구속한 인사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그들에게 죄명을 씌우는 건 너무너무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사회자 : 사실 따지고 보면 강정구교수와 김규철씨 등 7명은 방북후에 죄가 될 행위를 한게 없죠. 그들은 당국의 승인을 받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했으며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거행된 개폐막식에 참가한 것도 문제시할 게 못됩니다. 왜냐하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세운 시대적기념탑이거든요.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경륜을 집대성한 통일이정표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이념적기초로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뜻깊은 기념탑앞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의 개폐막행사에 참가했다고해서 문제시하는거야말로 반통일행위가 아닐수 없죠.

그리고 강교수가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정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글을 쓴 것도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다 찾아가 우러러 높이 칭송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생가에 가서 민족의 일원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건데 그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견지에서 봐도 전혀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문제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북과 화해하고 협력하며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안당국의 사법처리에 대해 각계가 그처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거죠. 전 여기서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비열하고 오만무례한 작태에 대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네, 동감입니다. 원래 한나라당은 당초부터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을 반대했고 공동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남북이 함께 하는 모든 통일행사와 협력사업에 얼굴도 내밀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의미를 깍아내리기 위해서 악을 써왔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 공안당국이 8.15방북대표단 가운데 7명을 구속한데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닦달이 컸다고 볼수 있죠. 그들은 구속자들이 방북후 무슨 큰 죄나 저지른 것처럼 보수언론까지 동원해서 법적 떠들어대며 사법처리해야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이회창을 비롯해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모처럼 마련된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을 시비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310여명의 각계대표들의 방북을 승인한 통일부장관까지 문제시하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낸겁니다. 지금 정계는 물론 국민각계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남북정상회담준비에 관여한 박지원장관을 15대 대선때의 선거자금문제를 거들어서 해임시키게 한데 이어서 임동원통일부장관을 또 해임시키려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임장관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어요. 전국연합의 한 간부는 방북단의 일부 성원들의 돌출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장관을 해임시키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고 카톨릭교 등 7개 종단은 일부방북인사의 돌출행동을 빌미로 통일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임동원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공식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자 : 우리 국민들은 6.15공동선언발표후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행각을 보면서 한나라당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무리이고 반통일집단이며 반드시 청산해야할 역적들의 집합체라는 걸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공동여당인 자민련내 반통일보수세력의 더러운 작태에 대해서도 묵과할수 없고 정신을 차리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다시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공안당국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에 부당하게 구속한 강교수와 범민련간부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해야하죠. 그리고 당국은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정이 아니라 즉시 철폐해야 할겁니다. 이번에도 보다시피 한나라당패거리 등 반통일보수세력들은 애국적통일인사들을 바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선 절대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할수 없고 나아가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습니다. 각계 민중은 국보법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벌여야한다고 봅니다.

파쇼폭거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9월 1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공안당국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인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와 범민련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 애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 공안당국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김규철씨를 비롯한 6명을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고무, 이적단체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감했는데요. 구속 이유인즉 이번에 강정구교수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겼다는 거고 범민련 김규철씨를 비롯한 6명은 방북승인 목적에 없는 범민련 3자연석회의를 열어 강령 등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사회자 : 공안당국이 이번에 방북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한거야말로 천만번 부당한 파쇼폭거가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이번에 한 행동을 보면 죄로 될 것이 전혀 없고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공안당국이 그들을 구속한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통일적행위이고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발표이전의 대결국면으로 돌려세우려는 범죄적파쇼망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국민들 속에서는 공안당국의 천만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규 : 그렇죠. 지난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단은 범민련측 인사들이 잡고 있는 혐의의 상당부분이 이번 방북행적과 무관하다며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범민련간부들이 남, 북, 해외 연석회의에 참가한 것은 연방제통일방안과 범민족대회 등 그동안 정부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행사에 참석한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공항에서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감금이므로 전원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가 작성한 만경대방명록의 문구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확대해석되었다면서 만경대정신이라는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자 : 이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통일연대소속 단체들 속에서도 울려나오고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통일연대소속 단체들은 방북대표단의 일부인사들에게 법적처벌을 가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조직원 6명이 구속된 범민련남측본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남측대표단 일부를 구속한 것은 6.15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적처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상황은 일부 언론의 여론모이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수구공안보수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사수하는 길에 전국민이 떨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북단 일부의 개폐막식참석은 무산될뻔 했던 방문일정과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의 방북활동을 법적으로 문제삼으려면 이전에 이북을 방문한 각계인사들의 행적도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냉전논리로 왜곡과장하는 언론보도와 위법처리된 인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연대 소속 대학생 300여명은 지난 8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검찰이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 일부를 구속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방북대표단 일부를 구속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구속자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일부 정당과 보수언론이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총련대학생들과 통일연대 회원 130여명은 긴급체포된 방북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과 서울검찰청 공안수사대 등을 항의방문해 구속자전원즉각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자 : 이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경제인들과 기자, 종교단체들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8월 24일 성명을 내고 동국대 강정구교수 등 방북 민간단체대표들의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8.15남북공동행사가 분단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방북활동을 문제삼아 사법처리를 강행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방북사태를 계기로 일부 언론들이 냉전적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일방적인 부풀리기식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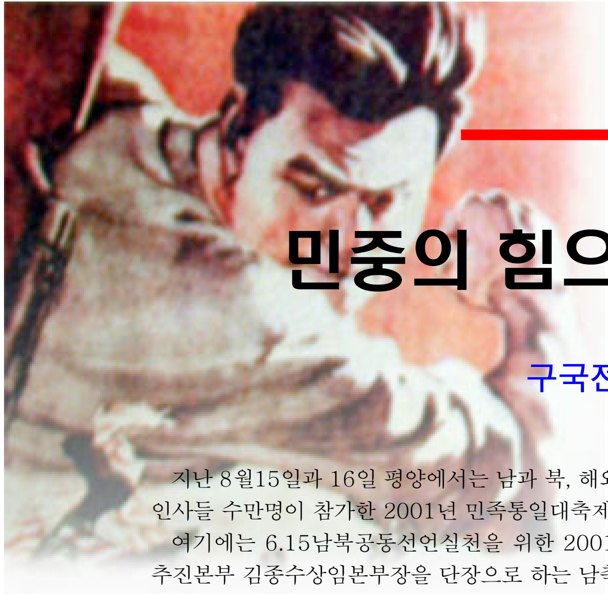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축전이 분단이후 남북한 최대의 민간교류였고 내년 남측행사에 북측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성과와 의미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대표단을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종교단체들도 일부 언론이 방북단의 활동을 왜곡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더이상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방북이 정치적쟁점이나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6.15남북정상회담정신은 이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공안당국이 방북대표단의 통일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한 파쇼폭거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공안당국의 불법무도한 파쇼폭거를 규탄하는 각계 국민의 항거는 더높이 지속적으로 울릴 겁니다. 공안당국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통일을 향한 대세와 민심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큰 국민적항거에 부딪히기 전에 부당하게 체포구금한 방북단인사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민중의 힘으로 반역무리를 짓부수자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9월 1일자

지난 8월15일과 16일 평양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대표들과 인사들 수만명이 참가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제가 진행됐다.

여기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김종수상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도 참가했다.

대표단은 8월15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북측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문화인, 경제인 등 여러 단체와 계층별 상봉 및 연대모임과 공동행사들도 가졌고 평양시내와 묘향산, 백두산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했다.

그리고 이번 민족통일대축제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계속 철저히 이행해나가기 위한 남, 북, 해외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겨레의 절절한 염원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거족적인 통일행사였으며 민족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민족대단합의 마당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남측대표단의 방북활동은 각계각층의 찬양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 일부 집단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구태의연한 반북대결관점에서 대표단의 통일애국활동을 헐뜯으며 반통일광기를 부리고 있다.

그 앞장에는 예외없이 한나라당이 서있다.

한나라당은 대표단의 방북이 승인되자부터 통일부가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의 눈치를 살피는 대북굴욕외교라느니 하며 대표단의 8.15통일대축제참가를 매우 못마땅해 했다.

한나라당의 반통일광기는 대표단의 성공적인 방북활동을 악랄하게 헐뜯는 데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무총장 김기배는 방북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고 ≪보안법≫폐지발언을 하는 등 친북행위를 하고 있다고 트집을 걸었고 대변인은 통일연대 인사가 만경대방문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서명한 것은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이어받자는 것이라고 헐뜯었다.

뿐만 아니라 총재라는 이회창은 대표단의 돌출행동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고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언동들은 아전인수격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인 것이다.

조국통일은 시대와 역사의 요구이고 민족모두가 해야 할 임무이다.

통일실현, 이것이 바로 애국애족이다.

그러기에 지금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으로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할 일념에 불타고 있다.

이번 방북대표단의 활동도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

의로운 이 활동을 걸고들고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반통일이고 민족반역인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반민족, 반통일집단임을 민중 앞에 또 한번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행태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숙원을 앞당길 수 없다.

각계층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반역의 무리들을 쓸어버릴 때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노선일≫





통일연대, 국민과 함께 하는 ≪수구반통일세력≫ 전면투쟁



통일연대는 1일 낮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남남갈등, 남북대결 조장하는 반통일보수집단 한나라당 규탄대회 를 열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남남간.남북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정과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종린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행동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린 상임대표는 수구보수세력과 야당이 8.15평양행사의 성과는 무시하고 발생한 사건만 침소봉대 해서 보도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특히 ≪한나라당의 이회장 총재가 앞장서서 현 민족문제를 푸는데 나와주≫길 당부했다.

이어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이 지금의 반통일적인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치연설을 해 규탄대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특히 노수희 공동의장은 재벌회장과 자민련의 김종필총재가 **김정일**위원장에게 보낸 선물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위원장님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국방위원장께 받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음을 이번 방북에서 확인했다면서 방북자 7인의 구속이 부당함을 역설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홍순석 부의장도 정치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본질은 민족분열에 있고, 북쪽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게 이 나라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울대 사범대 정유림 부회장의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항의서한의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김이경통일연대사무처장은 보수세력에 대한 이후 투쟁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구별로 동시다발 항의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과 한나라 등 수구보구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여론전≫을 중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김이경사무처장은 밝혔다. 이 ≪여론전≫을 위해 ≪유인물≫ 100만부 배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이경사무처장은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언론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퇴임 요구와 관련해 추진본부와 7대종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경실련 등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한 통일연대의 입장에 대해 김이경 사무처장은 ≪아직 통일연대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곧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각계의 반대성명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3일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오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통일연대, 그리고 이미 2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발표한 7대 종단, 추진본부, 경실련, 자통협 등 각계의 비판과 대응이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통일뉴스 2001-09-01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한나라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왔던 단일민족입니다.

그러나 56년전 남북이 나뉘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반세기 가량을 분단되어 살아와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뿐 아니라 분단과정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등으로 하여 국토를 가르는 철책선 뿐 아니라 민족의 가슴을 가르는 철책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포이건만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과 대결로 치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남북 정상간에 역사적인 상봉이 실현되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어지면서 한반도 전역에는 새로운 통일의 기운이 도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남북 장관급 회담이 계속되어졌고, 3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며, 경의선 철도 복원이 합의되어지는 가하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에서의 남북간 만남이 실현되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였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여 남북간의 전쟁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단합을 일구어내길 바랬습니다.

이번 8월 15일부터 있었던 ≪2001 민족통일대축전≫은 이러한 국민적 바램아니 전 민족적 바램을 앞당기고자 하였던 민간인들의 순수한 열정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축전의 과정에서는 각각의 종교인들의 만남, 문학예술인들의 만남,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등 남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간의 만남이 실현되어졌으며, 그 만남속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대축전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도 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족의 가슴의 철책선을 거두고 화해와 단합의 좋은 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향해 왜곡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유도하며 사회전반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대헌장 기념탑에서의 행사를 갔다는 것 자체가 마치도 체제를 전복시키고 연방제에 합의한 것처럼 악선전하고 만경대 방명록을 이북에 대한 찬양으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한결같은 마음에까지 합법이니 불법이니하는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곧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공동선언을 훼손하는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목습들은 결국 한나라당이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본질이 정권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해 민족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후퇴시키고,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낡은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 민족적 분열뿐 아니라 이남내에서의 분열까지 자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동을 절대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통일대축전의 의의와 성과를 더욱 정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감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가속도를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본질에 어떠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망동을 전국민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길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2001년 9월 1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서울대생 40여명 한나라당 앞 기습시위



오전 11시경 서울대 학생 40여명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당사 입구에 계란을 던지고 한나라당 현판에 붉은 색 페인트를 투척하였다.

서울대생들은 ≪반민족 반통일 정치행위 일삼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반통일 수괴 이회창은 자폭하라!≫,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 완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 현재 각 경찰서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생들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한 시기에 냉전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투표를 통해 공동선언 이행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행된 학생들은 모두 40명으로 영등포서에 10명, 양천서에 10명, 구로서에 10명, 강서서에 10명이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자 : 서영욱 / 작성일 : 2001-09-04

한청, 조선일보 규탄시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는 한청 전상봉의장을 비롯한 방북대표단 구속과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음해,조작하는 수구보수언론에 대한 규탄집회를 9월1일 오후3시 조선일보사가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앞에서 가졌다.

한청 소속 회원들 약100여명이 모인 이 집회는 지난 8월21일 방북대표단의 귀국과 함께 연행, 현재 구속 수감중인 한청 전상봉의장을 비롯한 구속 방북대표단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집회였다.

경기남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이혁희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홍순석 한청 부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상봉의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수구보수언론 및 반통일세력을 저지시키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방북대표단 활동의 성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변하는 않는 세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사회자는 조선일보는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 아니라 편집자들에 의해 소설이 만들어 지고 있다며 더이상 조선일보는 신문이 아니라고 주장해 집회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경기동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윤용배의장은 규탄 발언에서 남북청년단체공동합의문을 낭독하며 방북단 활동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조선일보 반대투쟁에 적극나서자고 주장하였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유인물100만장 배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회원들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일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의지를 조선일보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실천을 진행하였고, 집회를 마친 이후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는 한청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이번 방북대표단에 대한 음해,용공언론에 대한 응징과 방북대표단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특히, 구속수감중인 한청 전상봉의장의 석방투쟁에 적극 임할 것을 결의하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2001-9-1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9월 1일자



공안당국이 이회창 등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에 편승해서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여 의로운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대표들에게 그 무슨 ≪방북승인조건위반≫이니, ≪이적행위≫니 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걸어 탄압하고 있다.

파쇼공안당국은 지난 8월21일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표 3백11명가운데서 16명을 현장에서 연행해 갔으며 24일에는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공안당국은 그밖에도 다른 방북인사들도 소환조사중이라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추가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강교수에게 이북체제를 찬양할 목적으로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고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들에게는 정부의 방북승인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방북해 범민련연석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잠입, 탈출죄를 적용했다.

공안당국이 이들을 사법처리대상으로 삼은 것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공동선언이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마련한 행사이고 방북단 대표들이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것이나 묘향산, 백두산 참관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실현에 기여한 의로운 행동이며 결코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쇼공안당국이 일부 반통일보수세력들과 반북대결논리에 편승하여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을 ≪이적행위≫니, ≪방북승인조건위반≫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써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더 큰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지금 우리 민족은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20세기가 아니라 민족자주통일의 길이 열려진 새 세기에 살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수치스러웠던 지난날과 결별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남과 북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때에 이렇게 ≪안보≫요, ≪이적≫이요 뭐요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방북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통일역적행위이다.

파쇼공안당국은 저들의 이러한 책동이 온 민족 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를 똑똑히 명심하고 방북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수사중인 방북인사들을 전원 석방시켜야 한다.

≪김상진≫

대책위, 김 정권의 초심은 ≪강 교수 석방에서 시작돼야≫

강정구교수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강정구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박기학 간사는 4일 오전 10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구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던 것이 급기야는 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해임으로까지 연결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순경 대책위 고문은 ≪방명록 기록은 방문단의 하나의 ≪예의≫였고 강교수가 기록한 문구도 문제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으로 강 교수의 빠른 복직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자회견을 갖게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기란대책위고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족대결 논리에 의거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반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의 이적성 시비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는 문규현 신부의 방명록의 색깔 시비를 들면서 이것은 ≪모두 한때 우리 사회를 격한 소용돌이로 몰고 갔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만경대 방명록 사건 역시 그 전철을 밟을 것임≫을 확신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남북 대결 논리에 의거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색깔 논쟁의 허구성을 갖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기학 간사는 이후 사업계획은 △4일부터 검찰청, 국회 앞 1인시위(동국대 비상대책위와 대책위가 함께) △탄원서 서명운동 전개(청와대, 법무부, 검찰총장 등에 전달 계획) △대책위 소식지 발간 △석방 촉구 신문 광고 게재 △공청회 개최(구속적부심 직전인 이번 주말경) △여론화 사업(해외의 항의서한 ≪조직화≫후 청와대 법무부 등 관련기관 전달) △동국대 비상대책위 천막농성(8월 29일부터 시작) 등이 예정돼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대표단을 구성해 검찰총장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실무자들이 검찰측의 김영한(공안1과) 과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찰측의 입장과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은 3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검찰측은 공안1과 과장이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오늘 기자회견 후 검찰측과 의견조율을 갖고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검찰청 앞 1인시위는 동국대 사회학과 졸업생인 정현준(94학번) 씨가 참여했다.

한편, 박기학 간사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이 북측의 당국대화 재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임장관의 해임은 ≪JP와 손을 잡고 햇볕정책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성실히 실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현 정권이 보수수구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간사는 임 장관의 해임은 방북 대표를 구속한 것이 자승자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국대 비상대책위의 박경태(동대 사회학과 4)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임 장관 해임은 ≪6.15선언의 실현과 내년 대선, 그리고 강정구 교수의 석방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후 동국대 대책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과 1인시위 외에 다음주부터 2001 평양행사 방북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갖고 평양행사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객관적 평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제나 통일연대 주점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구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국대 비상대책위≫, ≪강정구 교우 석방대책위(향린교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강정구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해오고 있다.

통일뉴스 2001-09-04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강정구 교수가 방북 대표단의 일원으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 행사에 참가했다가 김포공항에 돌아오자마자 연행, 구속되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강정구 교수의 구속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며 오로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노력을 후퇴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은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은 다분히 의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통일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될 수 없다. 그리고 강정구 교수 스스로도 만경대 전신이란 항일 민족정신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냉전수구세력은 강정구 교수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만경대 방명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여론조작이 민족 대결을 부추기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갈수록 좁아져 가는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려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발로라고 본다.

사법 당국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시킨 것도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같은 여론 조작에 휩쓸린 결과라 생각한다. 검찰은 만경대 발언록을 문제삼던 애초 입장에서 선회하여 강정구 교수의 그 동안의 강연과 저술, 토론회 참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검찰 스스로도 만경대 방명록만으로는 강정구 교수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왜곡된 여론조작에 떠밀려 부당하게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ㅢ 중단과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은 학자적, 민족적 양심에 재갈을 물리고 학문 연구의 자유, 양심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강정구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문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쏟아 옴으로써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따라서 만경대 방명록을 문제삼고 그것도 모자라 강정구 교수의 저술과 강연, 토론회 참석을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제로 모는 것은 강정구 교수의 학자적.민족적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자 양심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문 연구의 자유, 양심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강정구 교수의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 대결 논리에 의거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색깔 논쟁과 여론 왜곡이 필연적으로 그 허구성을 얼마안가 곧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남북대결 논리, 냉전수구 논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허구성, 반역사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 라는 책의 이적성 시비나 **김일성**주석의 영생을 빈다 는 문규현 신부의 방명록을 빌미로 한 색깔 시비 모두 한 때 우리 사회를 격한 소용돌이로 몰고 갔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 이 두 사례는 민족대결 논리에 의거한 마녀 사냥 식 여론몰이가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만경대 방명록 사건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당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정구 교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번에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 6명의 석방도 촉구한다.



2001년 9월 4일
강정구교수 석방대책위(상임대표: 권오헌, 김태준, 문규현, 오종렬, 진관, 홍근수)

서울구치소 공안사범,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공안사범 관련 재소자들이 평양에서 열린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7인에 대한 석방과 구치소내의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현재 4일째를 맞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은 구치소 안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던 가운데 평양행사와 관련 7인의 구속조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단식에 들어갔다.

재소자들의 요구사항은 △평양행사 참가자 7인의 즉각적인 석방 △불평등한 대우 개선 △식수공급체계 개선 △폭언 금지 △배식시간 조절, TV 방영시간 단축 금지, 점호.점검의 간소화 등이다.

재소자들의 단식에 대해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임기란 회장은 ≪악조건속에서도 단식을 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장하다≫며 평양 행사와 관련 수구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7인의 무죄가 증명되는 날까지 모두 끝까지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권오헌 장기수송환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정부는 평양 축전 참가시 통제장소를 개인에게 통보한 적 없으며 정부 승인하에 다녀왔는데 이를 구속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들은 무죄 라고 선언했다.

재소자 처우문제에 대해 홍순석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언론사주에 대해서는 특별접견 등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한데 비해 단병호 위원장은 ≪엄중개호≫로 외부와의 관계가 아예 차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사무총장은 재소자들이 식수 위생이 불결하다며 생수 구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배식시간에 대해 재소자들은 현재 5시에 제공하는 저녁을 동절기에도 5시에 제공할 것과 오후 9시까지 시청할 수 있는 TV도 동절기에 계속 시청할 수 있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치소쪽은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치소 처우개선에 대한 사안은 이슈사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생활지도계의 노병원 주임은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단식을 만류했지만 이념적 사항이라 설득하기가 힘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구치소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중이거나 구치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식수문제에 대해 노병원 주임은 물이 흐르는 관을 동으로 교체했으며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수도국에 문의한 결과 장마 등의 날씨로 인해 약품의 양을 조절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생수의 구입은 다른 재소자들과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며 폭언과 반말에 대해서는 교도관과 재소자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다. 점호.점검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다른 구치소에서 탈주범이 생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온수기 설치는 전력을 보강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자 가족들은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면회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현재 단식중인 재소자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번주까지 단식을 마무리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소위 민혁당 사건≫,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자 16명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소속회원 10명으로 모두 2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뉴스 2001-08-30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김준배사건 축소 · 은폐 규탄

수사과정에서는 프락치 공작 검거과정에서는 치명적 폭력행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씨의 사망과정에서 ≪경찰폭력≫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대표 권오헌 등, 국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사회단체 소속 1백여명은 4일 서대문구 충정로 우체국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관련 경찰관들의 사건은폐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담당검사였던 정윤기(현 춘천지검 영월 지청장)씨의 진상규명위원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김준배의 죽음은 경찰의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이었다고 증언한 당시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수사검사나 경찰은 아예 발뺌을 하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의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검사가 한총련은 아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조사대상에 낄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인권모독이자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당시 한총련 의장 강위원씨는 ≪김준배열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한총련 이적규정을 푸는 열쇠다≫며 ≪김준배의 의문사는 당시 김영삼 정권의 한총련전체에 대한 공안탄압 방침과 맞물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경찰이 김씨를 안전장치도 없이 무리한 검거에 나서게 된 경위와 당시 김영삼 정권의 공안탄압 방침과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공개할 것, △폭행한 경찰과 이를 은폐 조작한 과정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 △당시 김씨 사건과 관련한 프락치 공작의 전모를 공개할 것≫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서대문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원래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불허로 충정로 우체국앞에서 진행됐다.

또 ≪김준배 열사추모사업회≫와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오후 4시 조선대에서 ≪김준배열사에 대한 경찰의폭력 살인 및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대회≫를 열고 전남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편, 당시 수사검사를 맡았던 정윤기씨는 지난 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출석요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란 반박문을 언론사에 보내 ≪본인은 김씨 사망과 관련이 없는 변사사건 지휘검사로서 출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검사는 10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에서 ≪당시 유족과 학생대표,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부검과 현장검증결과, 추락에 의한 사고사임이 명백했고 타살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을 지휘했다≫며 ≪이틀뒤 내사를 종결한 것은 시위대의 사체부검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검사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인 김씨가 수배도중 달아나다 추락사한 것은 의문사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등 시민사회단체는 내일(5)부터 강원도 영월지청 앞에서 정검사의 진상규명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3일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97년 9월 15일 추석한가위 명절날 새벽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준배(광주대 89년입학,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의 사망과정에서 경찰의 구타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김준배열사 추모사업회≫(회장, 이윤정)를 비롯한 유족들이 제기한 ≪타살의혹≫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에따라 인권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등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김준배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구타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 온 당시 수사검사 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또 경찰이 김씨 검거과정에서 주변 선후배를 돈으로 매수하는 등 ≪프락치≫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했음이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케이블 선 주변에 남아있는 발자국으로 보아 13층에서 추락한 것이 아닌 아파트 3-4층높이에서 뛰어내렸거나 추락했다≫는 것과 ≪추락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로 밟고 봉으로 가격한 것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을 확보했다≫는 등을 근거로 들어 ≪경찰의 구타가 추락과 함께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사망의 이유가 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진상규명위는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준배씨의 대학 선후배인 B씨와 C씨에게 수배중인 김준배씨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식사비와 술값 등 500~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김준배가 검거되면 별도로 1300~1500만원 가량의 사례를 약속했다고 당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정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정모 검사(현 강원도 영월지청장)에 대해 △ 사건발생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 로 내사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점 △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그동안 꾸준히 김준배씨의 사인규명을 요구해온 ≪김준배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이윤정(47)씨는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정검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상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구타한 경찰관, 프락치공작을 한 경찰관, 사건현장에 있었던 25명의 경찰관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경찰이 대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한총련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제2의 김준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시민연대(상임대표 권오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배씨 죽음에 관련된 가해자들의 처벌과 경찰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프락치 공작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정 검사의 진상규명위 출석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 경찰청에 3일에 이어 4일에도 항의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문제의 정검사가 현재 재직중인 강원도 영월지청에 대한 항의방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준배 추모사업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준배추모사업회는 오는 10일부터 ≪김준배열사 4주기 추모주간≫으로 설정하고 △ 망월동 순례 △추모 문화제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김준배씨 명예회복과 한총련 이적규정문제≫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2001-09-04

한국노총이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3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8일 8.15평양공동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소중한 성과를 남긴 이번 대축전을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온갖 흠집을 내려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언론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공주의적공세를 중단하고 야당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리적이고 대안있는 정치적논쟁에 나서며 관계당국은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후속수사를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시기 반통일분자들속에서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의 통일활동을 걸고 자행되고 있는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지탄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라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많은 대표가 모여 기어코 조국통일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다짐한 민족적대회합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번 8.15평양대축전을 통해 남과 북, 해외는 갈라질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염원도 하나이고 전민족이 단합하면 가까운 앞날에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 해외 공동보도문을 통해 온 민족이 연대해 6.15공동선언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다음해 8.15통일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며 민간급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 등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여나갈수 있게 한 커다란 성과라 하겠습니다.

8.15평양통일대축전은 또한 6.15공동선언이행의 일환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진행된 민족의 대회합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반통일세력은 8.15평양통일대축전의 성과를 묻어버리고 남북화해분위기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회창이 평양통일대축전 남측방문단의 활동에 대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느니하면서 축전성과를 외면하고 한나라당을 위시로 해 축전장소문제와 만경대방명록문제를 걸고들며 방북단인사들에 대한 체포, 탄압소동을 벌이면서 언론을 내세워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통일열기를 북돋아 준 범민족적인 통일축전에서도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국민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반민족반통일적 언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한나라당을 위시해 공안당국의 방북단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되고 있는 축전장소문제와 만경대대표단 방명록문제를 들었습니다. 민족의 통일축제를 다른 장소도 아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써 가타부타할 것도 없거니와 방명록문제 역시 본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문제로써 결코 문제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만경대와 백두밀영고향집으로 말하면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는 태양의 성지로써 이곳을 찾는 우리 민중은 물론 온 세상사람들이 칭송과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의 방명록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이 이번 평양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반통일분자들의 이같은 책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들의 평양통일대축전흠집내기를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한국노총이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의 이같은 행위를 반대하면서 그 중지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은 저들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로 해서 초래될 엄중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반민족반통일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각계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반북소동과 공안당국이 방북인사들을 사법처리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9월 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이 방북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떠드는 가운데 공안당국이 8.15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같이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사회각계에서는 공안당국이 방북인사 가운데 일부 성원들을 구속수감하고 계속 조사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아주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8.15남북공동행사가 분단이후 최초의 대규모민간교류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돌출행동을 문제삼아 사법처리를 강행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연대 소속 대학생들은 집회에서 검찰이 강정구 동국대교수와 범민련남측본부 간부 6명 등 7명을 구속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구속자석방을 요구했어요.

이밖에도 범민련남측본부, 변호인단, 한국기자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방북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규탄하고 구속자석방을 요구해 나섰습니다.

사회자 : 방북인사들의 행적을 문제시하며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주역이 바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비롯한 사무총장, 원내총무, 대변인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얼굴을 번갈아대면서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사법처리니 엄단이니 뭐니하며 독기를 풍기는가하면 방북을 허용한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의 이런 복작소동에 자민련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그에 동조하는 온당치 못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다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난폭하게 짓밟는 배신행위이고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냉각시켜 반북기운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고 또 오는 대선에서 대통령자리를 탐내는 이회창일파의 정략에 놀아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밖에 평가할수가 없죠. 남의 장단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정신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방북인사 중 일부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진행한 개폐식에 참가했다는게 아닙니까?

윤정원 : 네, 그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반민족반통일집단인 한나라당만이 할수 있는 용납못할 작태인데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평양의 통일거리에 세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바로 이같은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 조국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칠천만겨레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새 세기의 첫해 광복절을 맞으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크나큰 경사이고 자랑입니다. 민족통일대축전을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하는건 어떤 경우에도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과 일부 불순세력들의 분별없는 소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질시, 대결을 조장해보려는 교활한 속셈의 발로라고 봅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한나라당패거리들과 일부 불순세력들이 문제시하고 있는건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가 만경대를 참관하고 방명록에 쓴 글의 내용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강교수는 만경대생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어요. 만경대로 말하면 열렬한 애국자, 절세위인들을 배출한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성지죠. 강정구교수가 만경대를 방문하고 높뛰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방명록에 자기의 소감을 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라 하겠죠. 그것은 세인들 모두가 우러르며 칭송하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광복후 방북했던 김구씨도 만경대를 방문해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패거리들만이 만경대방문을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중요측면이라는 시각에서 봐도 이건 문제시될 사안이 아니죠.

사회자 : 그렇죠. 그러니까 이회창일파가 일부 불순세력들을 사촉해 일으킨 분별없는 망동에는 그들이 노리는 더러운 정치적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거기에는 남북간의 민간접촉과 대화, 교류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보려는 저의가 내포돼 있고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공격해 흠집을 내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보려는데 있죠. 하지만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행동은 사회각계의 항거만을 불러일으킬뿐 얻을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 추종세력에게도 경종을 울리지 않을수 없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자민련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목소리를 합치고 있는데요. 정말 옳지 않다고 봐요. 자민련이 지난 시기에도 남북문제와 관련해 똑바른 소리 한마디하지 않았지요. 오죽하면 사회각계가 자민련은 각기파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어요. 자민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짝짜꿍이를 한 처사에 대해서 심각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못된 짓만 골라하는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공동선언이행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남북공동선언이행의 암적존재입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계속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수 없었어요. 그런만큼 각계 민중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없애버려야 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반이회창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사회각계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반북소동과 공안당국이 방북인사들을 사법처리하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각계민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못되게 노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없애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걸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27～30일



지금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민중이 그처럼 바라는 자주, 민주, 통일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어 민중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데요. 이회창은 과연 어떤 인간인가, 어떤 뿌리에서 돋아났으며 무엇을 ***살았는가, 오늘 이시간엔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친 이회창은 어떤 모습이였는지 서울대 출신 김모씨의 글을 통해 보기로 하죠.

지난 주말 나는 서울 세종로 귀거래다방에 들렸다가 서울법대 여러 동기생들인 변호사, 교수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동안의 소식을, 동기생들의 소식을 화제에 올렸는데 자연히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출생, 대학생활로부터 법관시절 정치무대에 등장한후 특히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전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얘기됐는데 그것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모변호사

요즘 이회창은 일신의 권세욕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간자체가 변질되고 민족도 모르는 정치추물로 돼버렸다. 정가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변협결의문사건만 봐도 그렇다. 대한변협회원들도 전혀 모르게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대한변협 전 회장 이세중을 비롯 성모, 진모 등 경기고동창생 변호사들을 매수해 허위날조된 결의문을 조작해왔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들고 현정권의 개혁정치를 덮어놓고 비방중상하는 비열하고 간악한 수법을 쓰고 있다. 차기 대권을 향한 이회창의 더러운 모략을 두고 정가에서는 모두 이회창에게 침을 뱉고 증오하고 있다.

김모변호사

최근 신문에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의 친일반역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회창은 가정환경부터가 문제다. 뿌리부터가 썩어있다. 이회창은 대학입학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출생지, 고향을 숨기고 있다. 이회창은 원래 이북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했는데 대학입학서류에서부터 출생지와 고향을 서울이라고 속이고 변신했다.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선조의 뼈가 묻혀 있는 출생지, 고향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속이는 것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고 장차 비인간, 반사회적악한으로 변질될수 있는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일제시기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조선인임을 속이고 일본인행세를 했고 이회창이 1965년 당시 미국유학시절 학생들속에서 자기가 코리안임을 숨기고 미국시민행세를 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기욕, 부귀영화만을 누리려 한다면 언제든지 변신의 권모술수로, 반역에 반역을, 매국에 매국을 덧쌓을수 있다는 무서운 성향을 말해주고 있다.

양모변호사

이회창이 자기의 출생지와 고향을 속인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일제시기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황해도 일제 검찰청서기로 있었는데 애국독립운동가들을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하게 심문, 고문했는지 한 방에 있던 일본인 검사들도 낯을 붉히며 머리를 돌렸다. 또 실제 그의 신문, 고문과정에 수많은 애국독립운동가들이 불구가 되고 죽어갔다. 그래서 황해도 지방사람들이 이홍규를 때려죽이려고 **와 몽둥이를 들고 그의 집에 습격을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불안, 공포증을 느낀 이홍규는 두살난 이회창과 가족을 데리고 한밤중에 황해도를 탈출, 충청도 예산으로 도망, 거기서 정착하게 됐다. 그러니 천인공노할 민족반역의 대죄를 짓고 고향을 탈출해 숨어 살아온 이회창과 그의 아버지 이홍규가 어찌 떳떳이 자기의 출생지와 고향이 황해도 서흥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서모교수

이회창 가정에서의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은폐된 민족반역의 체질이다. 원래 외세의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국적상황에서는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외세에 빌붙게 되고 민족을 배반하게 된다. 일제시기 친일반역행위를 한 이홍규는 일제가 망하고 8.15광복이 되자 재빨리 친미로 변신, 미군정청 전남검찰청 검사로 되어 또다시 애국통일운동인사들을 검거, 학살하는데 나섰다. 이홍규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을때 현장체포구속되는 검찰역사상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이홍규검사의 죄명은 수사기록 허위날조, 강박에 의한 간첩조작음모, 이것은 이홍규가 공안검사로 얼마나 악독하고 야수적으로 무고한 주민,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조작, 학살했는가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모변호사

아버지 이홍규의 그런 체질을 이어받은 이회창의 본성은 이미 대학시절부터 나타났다. 출세의 유일한 길이 고등고시합격이라고 생각했던 이회창은 그 고시합격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대학1학년에 올라가자 청주중학동창생인 신모학생에게 하숙비를 대주는 댓가로 학교출석대리사인을 시켜놓고 충남 예산 수덕사 절간에 들어가 4학년 고등고시에 응시할 때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그가 산속절간에서 들어가 공부한 것이란 고등고시과목 5가지 책만 기계적으로 암송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암기한 법학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경성법전 동창생인 김모씨 고등고시위원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하여 몇백명을 합격시킨 고등고시 역사상 가장 저질인 제8회 사법과에 부정합격했다. 학문탐구, 인격교양하는 곳이 대학인데 이회창은 대학졸업자라고 하지만 대학간판을 도용한 것으로 된다.

또한 대학재학기간 징집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군입대문제가 생겼다. 개인이기에 약삭빠른 이회창은 재빨리 병무청관리를 돈으로 매수, 6.25전쟁시기 포항에서 모집된 학도병명단에 불법삽입, 가짜 제대증을 만들어 대학 4년을 무사히 졸업했다.

이회창은 이미 대학시절에 외세 친미사상이 골수에 박혀있었다. 대학졸업할 무렵 미잉여농산물 유입을 반대한 청년학생들과 각계 농민들의 반미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서울대학 대강당에서는 미잉여농산물문제에 대해 성토대회가 있었다. 성토에 나선 이회창은 우리 국민에 있어서 미국이 전하는 잉여농산물은 산타클로스가

보내는 선물과 같다. 미국은 한국에 ***이고 도대체 미국을 떠난 한국의 존재란 생각할수 없다고 말해 온 장내를 들먹케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농민들의 몰매를 맞고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 배달민족의 피와 양심이란 눈꼽만치도 없는 친일악질주구 이홍규의 아들다운 모습이였다.

김모변호사

외세와 불의에 빌붙에 일신의 권세만을 추구하는 이회창의 죄질은 그의 법관생활과정에 더욱 드러났다. 이회창은 5.16쿠데타와 함께 서울지법판사에서 군사**재판소재판관으로 발탁됐다. 진보적애국인사들은 물론 무고한 각계층 민중들을 마구 잡아다가 감옥도 모자라 서울 시청앞 덕수궁안이 넘쳐나도록 가두어 놓고 살벌한 군사재판을 벌일때 이회창은 때를 만난듯 소정의 재판절차도 없이 마구 고문, 학살했다. 민족시보사장 조용수씨도 바로 이때 이회창재판관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언도를 받고 사형됐다. 박정희가 타살되고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해 전두환 신군부독재정권이 등장하게 되자 이회창은 재빨리 신군부정권에 붙어 대법원판사 겸 대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라는 사법부의 실권적핵심부에 들어앉게 됐다. 이회창은 신군부정권의 모든 재판권을 좌지우지하면서 광주사태이후 고조되는 반미자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애국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색출, 학살해 재판처형하는데 큰 죄악의 공적을 세웠다.

김모변호사

이회창은 변질되고 썩은 자기의 인간성을 대쪽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회창은 야당총재로 밤마다 재벌들을 비밀리에 만나 차기 대권을 잡으면 구조조정된 **를 원상복귀시켜 주고 금융특혜를 주겠다는 등 비열한 사기협잡공갈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 시골에 있는 이미 죽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2억원씩이나 들여 호화주택으로 개축하는 것도 바로 부정축재한 그 더러운 돈으로 하고 있다. 또 남의 자식들은 다 군대에 나가는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병무당국에 막대한 뇌물을 주고 허약자로 만들어 병역징집을 불법면제시켰을뿐 아니라 부정축재한 돈으로 미국으로 빼돌려 호화부패생활을 시키고 있는 것이 이회창이다. 이회창이 대쪽이라면 뿌리까지 썩고 병든 대쪽이다.

정모변호사

인간 자체가 변질되고 썩은 정치인은 정치에서 민중, 민족을 등지고 반역의 길로 나가기 마련이다. 지난해 4월 ≪4.8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이회창의 얼굴은 숯덩이가 되고 절망에 빠졌다. 남북의 두 정상이 상봉하게 되면 분단과 대결, 전쟁위험 등 불의하고 구시대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자주와 통일을 안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이회창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회창은 조선일보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민들속에 비등하는 ≪4.8합의서≫에 대한 기대를 깨고 남북정상들의 상봉을 저지시켜야한다고. 바로 그 이튿날 조선일보 조간에는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회창의 발언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도 있지만 이회창과 우익수구세력, 조선일보와 같은 민족반역언론이 거품을 내며 짖어댔어도 역사적인 평양상봉은 이루어졌고 반세기 이상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안아올 위대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발표되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세계가 진심으로 환영했다. 오직 한나라당총재 이회창만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TV에 등을 돌려대고 손자와 화투놀이를 했다. 실로 6.15남북공동선언은 이회창에게 있어서 심장에 박힌 비수였다. 이회창은 ≪적화통일의도를 받아들인 것≫, ≪현실성이 없다≫ 등 조선일보를 통해 계속 발광적으로 짖어댔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 등 그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나가자 이회창은 더욱 이성을 잃고 발광적으로 ≪일방적퍼주기식 지원이다≫, ≪국민혈세 탕진이다≫,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절망적인 비명을 올렸다.

서모교수

절망에 빠진 이회창에게 산파주사를 놔준 것은 새로 등장한 보수호전분자인 부시미행정부였다. 이회창의 본질적체질은 외세에 빌붙에 기생하는 것, 외세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다. 지난해 12월 미국대통령선거결과를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회창은 부시의 대통령당선 확정이 발표되자 탄성을 올리며 구세주를 만난듯, 죽은 아버지가 살아온듯 미친듯이 기뻐했다. 친일주구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8.15일제패망소식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가 미군의 인천상륙소식을 듣고 미친듯이 인천항으로 달려가 환성을 올리며 미군을 환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이회창은 이미 부시가 미공화당대통령후보로 출마하자 한나라당측근 인물들로 부시당선지원단을 만들어 엄청난 달러보따리를 들려 미국에 보냈다. 그 지원단은 미국에 가서 공화당정계인물들, 캘리포니아대 동창생 인맥들을 만나 막대한 달러를 뿌리며 부시당선운동을 지원했다. 이회창은 바로 부시행정부에 매달려 ≪대북강경≫, ≪신냉전≫,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걸음마다 저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발악적으로 방해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유일한 생존, 권세의 길을 찾고 있다.

대학동기생들의 이회창에 대한 시각과 애기는 실로 날카롭고 정확하며 정의로왔다. 그들은 체험을 통해 이회창의 변질되고 썩은 인간성, 외세에 빌붙어 일신의 권세를 누리려는 반민족적체질을 정확히 파헤쳤다. 이회창은 실로 인간악의 화신이며 외세의존, 민족반역의 화신이다. 그런 이회창이 한나라당총재로 가증스럽게도 차기 대권을 망상하며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을 하루속히 정계에서 색출하고 사회에서 영영 매장해버려야한다. 이것이 그날 귀거래다방에서 우리 대학동기생들이 이회창에 대한 화제를 마치며 내린 일치한 결론이였다.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 김모씨의 글이였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파렴치한 짓도, 권모술수도 꺼리지 않는 이런 인간추물, 악한이 대통령자리를 차지한다면 민중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되고 통일도 이룰수 없다는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거죠. 이회창과 같은 친일역적은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장해버려야 합니다.



이회창 놔두면 제2의 6.25가 터진다

-재야인사 김학성씨의 글-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9월 1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에로 내달리던 겨레의 통일운동이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동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화해와 단합에로 향하던 남북관계가 긴장격화에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족앞길 가로막기에 적극 추종하면서 제2의 냉전을 몰아오고 있는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행위로 인해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회창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찬양하면서 이땅을 미국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 바치기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역사적인 공동선언의 발표되자 남북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비하던 이회창은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하면서 미국의 더러운 옷섶에 매달려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심지어 이회창은 온 겨레, 온 세계가 적극 지지 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식민지 정견으로써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이회창은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철저한 ≪검증론≫을 떠벌이며 남북문제를 대결의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허구적이며 반민족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

특히 이회창은 이번에 진행된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대표단성원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두고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느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 왜곡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표단 성원들의 활동을 빌미로 삼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또다시 떠벌이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통일론을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흡수통일로 동족인 이북을 집어삼키겠다는 이회창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회창의 이같은 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이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과 의사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이회창은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섬겨 받치는 댓가로 대통령자리를 타고 앉으려고 하고 있다. 만일 이런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땅에는 제2의 6.25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언제가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낼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국민은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수 있겠는가. 현실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하는 준엄한 이 시각에 각계 민중은 미국의 핵전쟁머슴꾼,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해 나서야 한다. 만일 이회창이 민의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상쟁과 분열책동에 광분한다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역대 사대매국노들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땅의 각계 민중은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의 불길로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 전쟁미치광이인 이회창을 단호히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세계사적 대사변

구국전선 주체90(2001)년 9월 1일자



9월 2일은 7천만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된지 1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는 이남의 각계 애국민중은 그처럼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무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고 있다.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정의의 성전에 나서 희생적으로 잘 싸운 애국충신들이며 민족의 영웅들이다.

더욱이 그들은 전향서에 손도장만 찍으면 감옥에서 나와 향락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20~30년, 심지어 40년 이상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조국과 민족, 특히 자기 영도자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낸 신념의 화신, 의지의 강자들이다.

참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이야말로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할 민족의 장한 아들들이며 영웅들인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북송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소박하나마 진정에 넘친 환송연도 베풀고 위대한 품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빛내일 그들의 여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뜨거운 눈물 속에 바래웠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한꺼번에 북송된 것과 같은 일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변이다.

겨레를 울리고 세계를 경탄시킨 이 역사적 사변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체현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셨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다.

비전향장기수북송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의 하나로, 통일로 향한 관문을 돌파한 역사적 쾌거로 된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했음을 내외에 선포한 민족자주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이다.

외세의 강요에 의한 분단의 비극을 자율의 노력으로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데 공동선언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 1돌을 맞는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우리 겨레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시어 통일의 밝은 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역사적 공적을 높이 격찬하며 그분께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북송 1돌을 맞으며 우리 민중은 통일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민족사적 대제라는 사명감과 절박감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조국통일은 역사의 부름이다.

하루속히 조국이 통일되어 아직도 북송을 고대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과 이산가족들, 남북의 온 겨레가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과 만나고 자유로이 오가면서 살아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통일애국에 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조연택≫

민족의 수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고 요즘 이회창이 노는 꼴이 신통히도 이와 같다.

입만 벌리면 ≪이북퍼주기에 경제에 주름살이 생긴다≫느니, ≪민생이 흔들린다≫느니 뭐니 하며 쓰레기장에 처박힌 동족대결의식, 반공, 반북나발만 불어대니 이거야말로 동족도 모르는 얼간망둥이만이 할 수 있는 미친짓이다.

더욱 분격을 자아내는 것은 민족통일의 이정표로 온 겨레, 온 세계가 지지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두고 주한미군철수, 외세배격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느니, 경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언까지 거리낌없이 쾌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민족의 피가 한방울이라도 있는 자인지 모르겠다. 요 며칠전에는 이북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핏대를 돋구었다.

참으로 이회창은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광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다.

하긴 일본을 할아비처럼 섬기던 친일역적의 후손이 달리야 되겠는가.

이런 매국역적, 친일역적이 민족의 ≪일원≫으로, 야당총재로 활개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역적 이회창을 민족의 명단에서 제거하고 매장해야 한다.

독초는 제때에 뽑아버려야 한다.

시민 김정호

이회창 하면 ≪대쪽≫이 아닌 ≪쪽정이≫가…

≪고려대 반통일 단죄 투쟁위≫ 장원정대표







≪한나라당과 그 당을 대표하는 이회창 총재는 우리민족,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당의 기득권, 대권창출에만 매달려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615공동선언부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보다, 무조건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때도, 815때도, 그리고 급기야 통일부장관해임건까지 보더라도... 더이상 한나라당과 이총재는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1948년 일제 치하에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고려대 반단투위 의 장원정(생명과학부, 97) 대표가 요즘 ≪이회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나선 이유다.

≪반단투위≫는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의 줄임말. 언뜻 무시무시한 느낌을 전달하는 ≪반단투위≫를 결성한 건 올해 5월이다.

고대 생명과학부, 생명환경과학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한반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인 된 615공동선언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이 레이더에 포착되면 정의의 이름으로 내 너를 단죄하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이 ≪반단투위≫를 결성하고 처음 벌인 시위는 김영삼 전 대통령 집앞 1인시위.

≪당시 YS가 공동선언과 관련해 내뱉은 망발이나 행동은 전 대통령으로서의 위신을 깡그리 무시한 희대의 엽기코메디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지난달 21일부터는 한나라당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하게 벌이는 사업은 ≪e-유인물 배포≫(http://tongilsesang.wo.to/). 이는 인터넷시대에 맞춤한 시위를 찾다가 선택한 것이다. 지난주에 나온 통일세상 1호 유인물은 ≪△이회창 아버지의 친일파 논란 그 진실은 무엇인가? △대쪽의 탈을 쓴 간신 이회창론 등≫ 이총재의 전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사람들이 이총재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집행에 앞장섰던 행적이나, 친일파 자손, MD지지 등.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e-유인물도 이회창의 전력을 소상히 공개하고 그런 이미지를 깨는 게 목표에요. 700여개의 사이트에 링크를 시키고, 2주에 1만명 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숫자는 한번 클릭할때 마다 카운트가 올라가구요. 반응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장씨는 아이러니하게도 각 설문조사에서 이총재가 대학생들의 정치인 호감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해 ≪97년대선때 이회창대통령만들기에 혈안이 됐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대쪽이미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언론이 만든 이회창의 이미지를 대학사회에서 부터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미지 정치가 진실과 본질을 호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젠 이회창하면 ≪대쪽≫이 아니라 ≪쪽정이≫가 떠오르게 하겠다는 이들의 야심찬 계획이 설문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1-09-05 15:05:00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셔먼호≫의 침입은 무엇을 말해주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8월 27～30일

미제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격침된 때로부터 1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먼호≫ 격침문제와 관련해 일부 숭미사대주의에 물젖은 사학자들속에서 쓸개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연단 이번에는 ≪≪셔먼호≫의 침입은 무엇을 말해주나≫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미제가 우리 나라에 침략선 ≪셔먼호≫를 침입시켰다가 격침된 때로부터 135해가 됐습니다. 이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한 침략자, 약탈자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학자들 속에서는 ≪셔먼호≫의 격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로 발전하는데 저해를 받았다는 주장들이 울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런 견해가 나오게 된 바탕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윤정원 : 일부 사학자들 속에서 이런 부당한 견해가 나오게 된 근거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우리 나라의 근대화과정 즉, 우리 나라를 자본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적으로 고찰하는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죠.

아시다시피 이남의 역사학계에서는 오늘까지도 지난날 일제의 어용사가들과 제국주의 어용사가들이 저들의 역사관인 식민지역사관에 기초해서 우리 나라의 사회역사발전을 고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예요. 이와 같은 식민지사관에 기초하면 근대시기 우리 나라의 근대화과정을 일본이 중요 자본주의열강의 ***산물이라고 보게되죠. 이남의 보수적인 반동사가들은 이같은 식민지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셔먼호≫의 침입을 미제가 이조봉건정부에 우호조약을 맺어 우리 나라의 근대문명을 보급하기 위한 우호적인 운동이라고 주장하는거죠.

사회자 : 이 시기를 보면 당시 집권했던 대원군은 엄격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논거중의 하나가 이 쇄국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유원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일부 사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논거에서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들고 있는데요.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사상의 도입을 저해하는 극히 반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셔먼호≫의 격침은 나라의 근대화발전에 부정적이였다고 했죠.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환경에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지극히 당연했다는게 양식있는 학자들과 지성인들의 일치한 견해예요. 사실 우리 나라에 이웃이었던 중국, 청국이죠, 중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침략으로 반식민지로 전락되었어요. 영국은 온 인도를 완전히 식민지로 갈아타고 앉은 다음 1840년엔 아편전쟁을 일으켜 홍콩을 빼앗고 연이어 광둥, 상해 등 조속한 항구의 개방, 치외법권, 관세협정 등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미제도 이에 뒤질세라 1858년 텐진조약과 1860년 극동조약으로 천진, **등 **의 항구들을 손에 넣었죠.

이런 환경에서 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 사례로 1866년에 이조봉건정부가 우리 나라에 비법적으로 침입한 프랑스선교사들을 처단했을때 청국이 투항주의적타협안을 권고했으나 대원군은 이를 일축, 부정했어요. 당시 이조봉건정부는 청국의 속국으로됐으나 청국과의 주종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청국에 대해 형식상 사대외교를 하고 종국의 형식으로 **를 해왔지만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던거예요. 그래서 국경지대 프랑스군사 패로에가 자기의 선교사들이 처단된 책임을 청국정부에 문제삼을때 ≪우리 나라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더 일찍이 제국주의식민지로 전락됐을 겁니다. 그건 그후에 집권한 사대주의적인 ***자들에 의해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의 각축전장으로 됐을때 여실히 알수 있죠.

사회자 :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학자들이 ≪셔먼호≫의 침입과 격침을 두고 그릇된 주장을 들고 있는 것은 또한 그들속에 뿌리박고 있는 친미사대주의사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봅니다. 이남의 숭미사대주의적인 사가들은 미제의 식민지문화정책의 요구에 따라 민중들속에 숭미사대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근대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죠. 그들은 근대초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예외없이 아메리카의 근대적인 사상과 문화, 경제를 조선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셔먼호≫의 격침은 근대화의 보급을 저해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친미, 숭미가 골수에까지 박힌 사대주의적망발이 아닐수 없죠. 역사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난 당시 미국의 정체를 돌이켜보면 일부 사가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금방 알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원 : 네, 그래요. 당시 미제는 본토에서 남북전쟁이 종결되자 조선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책동했죠. 미제는 19세기 60년대 들어와 조선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 목적은 우선 남북전쟁후 소수아시아지역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조선에서 귀항지를 약탈하려는 야욕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당시 미제는 태평양횡단항로를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해, 횡단항로를 빨리 개척함으로써 세계침략에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밀어제치고 중국에 대한 침략독점권을 획득하려 책동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기성**상태를 가지고는 샌프란시스코와 상해간의 북태평양을 단숨에 건널수 없었고 따라서 중간 취항지로써의 조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미제는 남북전쟁을 하는 와중속에서 잃어버린 아시아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금은보화의 나라로 알려진 조선의 남쪽으로 온거죠. 그리고 조선을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것도 당시 미제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어요. 미제는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동북아침략을 위한 주요거점으로 될수 있다고 타산을 하고 이에 커다란 의의를 돌렸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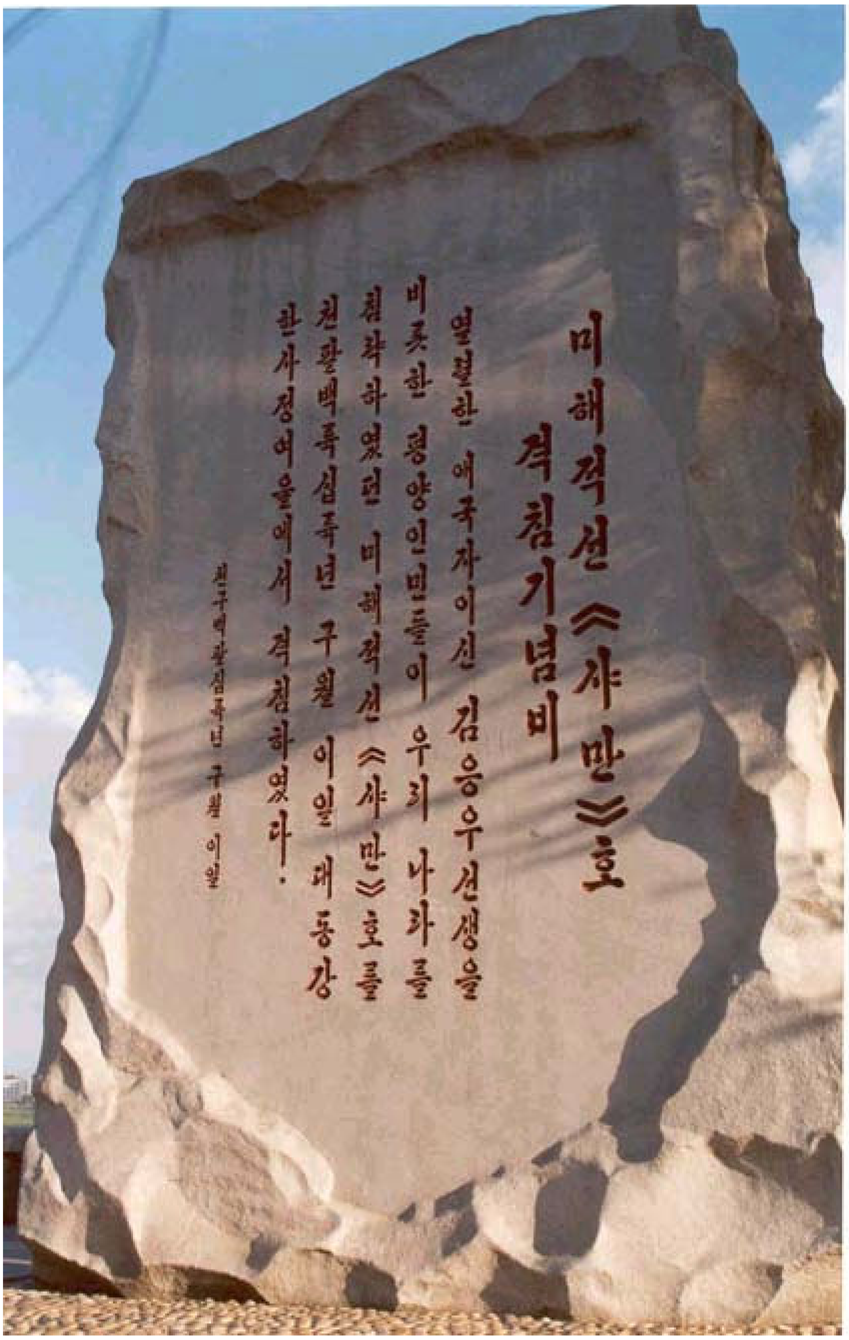
사회자 : 당시의 미제의 이같은 침략적속셈은 ≪셔먼호≫를 침입시킨 목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미제는 ≪셔먼호≫를 침입시켜 군함과 대포로 조선봉건통치층을 위협해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행하고 약탈적무역의 길을 터놓으며 조선을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키려고 획책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이 ≪셔먼호≫의 침입노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1866년 8월 중순에 대동강으로 침입한 ≪셔먼호≫는 첫날부터 정탐행위와 약탈을 일삼았어요. 이에 대해 봉건정부의 평양**이 대표를 파해 비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그러자 파렴치하게도 쌀천석과 많은 금 은등 **들을 몸값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들의 이런 날강도적요구가 거절당하자 대동강을 오르내리면서 조선배들을 약탈하고 조선사람들을 마구 살해했어요. 이런 사실은 미제야말로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날강도적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역사적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선 ≪셔먼호≫는 결코 우리 나라에 근대화와 문명을 선사하기 위해 온게 아니죠. 오히려 미제는 ≪셔먼호≫ 침입이후 저들의 대규모적인 침략과 함께 일제를 부추겨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게 함으로써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봉건사회태내에서 발생해 점차 자라나기 시작한 조선의 자본주의적관계의 정상적발전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일부사가들이 ≪셔먼호≫의 격침을 두고 역사적사실을 오도하는 건 숭미사대주의사상의 직접적 표현으로써 반민족적죄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경향각지의 각계민중들이 일부 사대주의적인 사가들의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땅의 모든 민중들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반미자주화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나가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얘기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대전충남 학생운동대토론회

투쟁하는 청춘들이 함께 논의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대전충남학생운동 대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봅니다.

청년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투쟁의 사항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속에서 응집된 힘으로 투쟁을 해야할 과제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소통조차 없었기에 단결된 힘을 발휘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대우사태문제만 보더라도 지역에서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함께 투쟁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목소리로 투쟁을 전개하는 지역에서의 청년학생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역투쟁에서도 큰 원동력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변한 정세속에서 청년학생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에서의 진보적 학생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면서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학생운동의 통큰단결을 만들고자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좁혀나가고 공통된점을 함께 찾아서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에서의 운동하는 선배님들의 따스한 관심과 애정어린 이야기들 또한 듣는 자리도 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의 통큰 단결된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의 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빛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 대전 충남 학생운동 대토론회 일정 ■
- 일정 : 9월 15일 늦은 2시
- 장소 : 민족 충남대 인문대 강당
- 참가단위 : 대전연석회의 ·충청학협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충청총련
- 토론회 진행 ; 전대기련 충남지부장
- 순서

개회
민중의례
축사

주제1 : 당면한 정세속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과 투쟁과제
주제2 : 학생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연석회의 · 충청학협 · 21세기진보학생연합 · 충청총련 전대기련충남지부





MD저지 공대위에서 MD문제 공청회

MD저지 평화실현 공동대책 위원회

초대합니다
[MD문제 토론회]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주 최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후 원 : 21세기 동북아평화 포럼
일 시 : 2001년 9월 6일(목) 14:00-16:30
장 소 : 여의도 한국노총 8층 강당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돼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MD의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명분으로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면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게도 MD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갈수록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MD 문제는 한편으로는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돼어온 한반도 화해 ·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 및 안보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M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론 형성 및 정책 대응 마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정부 · 여당 및 야당은 가급적 ≪쉬쉬≫하면서 이 문제를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추어 MD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토론 의제
(1) MD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 'MD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의 타당성에 대해
(3) 한국이 MD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4)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회 프로그램
사 회 : 백학순(세종연구소)
발제 MD와 한반도, 무엇이 문제인가?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한국의 MD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자 : 김성호, 장성민 의원(민주당),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의원), 박원곤(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승국(자통협 홍보위원장

매향리 국제문화제 10월13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매향리 평화를 위한 국제문화제 10월 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

비에케스와 오키나와 와의 연대 속에 국제문화제로 치루어질 예정이며 기간에 매향리를 방문하셨던 모든 분들과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50년동안 미군의 폭격실험용으로 3000명의 매향리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매향리는 살아있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미군이 전쟁연습을 위해 제2의 생체실험을 자행한 현장입니다.

10여명의 주민이 폭격으로 사망하였고 수십명의 주민들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청각피해,중금속 중독,유산 등은 매향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겪는 일들입니다.

비록 소음피해만을 인정한 법원의 배상판결이 피해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서 이루어낸 최초의 승리물이며 매향리에서 미군폭격장을 철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매항리주민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매향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군폭격장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작년 5월 폭격연습이후로 지펴진 범국민적인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으로 이미매향리를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론 확산에 머물기 보다 수만이 모여 매향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요구를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취지로 매향리 평화를 위한 문화제를 국제적인 연대차원에서 규모있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제준비위에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출범식이 9월 7일 오후 3시에 향린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단체 대표님들과 간부님들,매향리폭격장폐쇄를 염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향리 평화를 위한 국제문화제 준비위원회
(mhplan@hanmail.net)



한총련, 하반기도 ≪안티조선≫ 계속

9월5일 프레스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이하 한총련)과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학정책위원회 등은 9월5일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조선일보 구독중단 및 신문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조선일보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백 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은 언론사주의 구속에도 불구,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홍위병으로 매도하는 등 여전히 곡필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조선일보 바로세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왜곡.허위보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본질 호도≫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과 화해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도 행태≫ 등도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총련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은 향후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 거부≫ ≪조선일보 구독 중지운동≫ ≪조선일보에 신입생 모집광고 및 교직원 모집광고를 싣지 않는 방안 논의≫ ≪조선일보 반대집회의 지속적 전개≫ ≪언론개혁과 정기간행물법 개정투쟁≫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1/09/05
홍성식 기자 ⓒ 2001 OhmyNews

태양은 영원히

-일본인 가네다 노무레의 시-
구국의 소리 8월 25~27일

사무칩니다, 사무칩니다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조선사람도 아닌 제가 주석을 어버이라 부른다고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뵈었더라면
이 마음 이다지 아프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제 뵘겠습니다
주석,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주석은 저의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끝없이 전해지는 인간사랑의 이야기
길가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손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보내시고

농민들 만나 담배도 권하시고
깊은 수림속 사령부에서 밤도 주워 사병들과 함께 드셨다는
사랑의 전설,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조선의 어버이
그분은 진정 태양이십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십니다

태양의 후계자 김정일장군각하의 주위에 한마음되어
한반도의 북과 남
꿈에도 소원인 평화통일, 큰 걸음 내디디었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순탄치 않아도
김정일장군님의 당과 군대, 민중은
새 승리의 길로 내달기에

김일성주석각하는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주체 90, 8월 26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창립 32돌에 즈음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와 성원들이 25일 아침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대표부성원들은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부강번영, 민중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주석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성원들은 이날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여사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창립 32주년을 맞으며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와 성원들이 25일 아침 애국열사릉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고귀한 한생을 바친 애국열사릉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묵상했습니다.

≪한민전≫대변인은 ≪한민전≫ 창립 32주년을 맞으며 2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32년전 ≪한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의 창당은 이땅에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이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주체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역사적선언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역사학 김모교수는 조러모스크바선언채택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는 이정표 마련이라면서 이런 괄목할만한 외교적성과를 이루어내신 **김정일**장군님은 전세계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외교의 천재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공안당국은 24일 평양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7대종단은 한나라당이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인사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8.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방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인사들의 소위 돌출행동과 관련해 사실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8월 23일 한강 독극물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맥칼랜드 주한미군용산기지 영안실소장을 공개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측이 중국 회룡장성 동림현에 살고 있는 한국여성 등 종군피해여성 4명을 돈으로 매수해 역사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콩의 ≪대봉호≫는 중국 북반부 보도를 이용해 이달초 일본인 2명이 동림현에 사는 이성인할머니 등 4명을 찾아가 거액의 돈뭉치를 건네며 과거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실을 발설하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를 비롯한 방문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 지난 20일자는 ≪**김정일**총비서의 러시아방문 상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지난 20일자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5일 포르투갈시문 ≪우 푸블릭크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함께 조러모스크바선언문에 서명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선언의 상세한 요지를 실었습니다.

노르웨이신문 ≪브리아텐≫지난 10일자도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선언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5일, 이집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는 8월 24일 성명을 내고 동국대 강정구교수 등 방북민간단체대표들의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8.15남북공동행사가 분단이후 최초의 대규모민간교류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방북사태를 계기로 일부 언론들이 냉전적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일방적인 부풀리기식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회시민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나선 공안당국과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회창일파를 반통일세력이라고 규탄하고 구속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매국역적의 후손인 이회창은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에서 활동하는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일족이 3대에 걸쳐 친일매국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다. 이회창일족이 3대에 걸쳐 친일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이회창일족이 대대로 일제의 수족이 되어 애국인사탄압에 광분해온 민족의 극악한 원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역적은 3대를 멸족시키라 했거늘 3대에 걸쳐 역적행위만을 일삼아온 이회창일족은 씨를 말리워야 한다. 죄악중에 가장 큰 죄악은 민족반역이다. 그런데 이회창과 같은 역적의 후손이 정치인으로까지 둔갑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으니 이는 우리 국민의 수치라 아니할수 없다. 역적의 가문에선 역적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회창이 기회있을 때마다 민족의 원수인 주한미군철수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역적가문의 피를 받은 반역아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을 그대로두면 우리 국민이 무슨 재난을 입을지 모른다. 사대매국이 골수에 찬 이회창과 같은 반역아는 지체없이 제거해버려야한다.≫

1945년 8월 광복직후 조선인징용자 7천여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다 침몰한 ≪우키시마 마루≫에 탑승했다가 살아남은 4명과 희생자유족 등 100여명이 24일 오후 서울 장산빌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생존자 15명에 대해서만 보상판결을 내린 것은 수장된 5,000여명의 원한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성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돌아오신 것과 관련해 8월 20일 조총련에서 장군님께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멕시코신문 ≪프라바하 도레스≫ 8월 15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셨습니다.

주체 90, 8월 28일

대구에 사는 재야인사 임성모씨가 20일 시내 모처에서 열린 시국간담회에서 **김정일** 장군님의 반미통일의지를 열렬히 지지했습

니다. 그는 주한미군철수를 민족통일의 대전제로 다시금 천명한 모스크바선언조항을 보면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자주통일의 지가 투철한 분이심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로 이땅의 위정자들은 통일은 미국과의 공조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사대매국적인 입장에 집착해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영구주둔을 애걸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한미군철수를 통일의 제일 중요한 전제로 보시며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하신다. 나는 지난해 6.15공동선언에서 장군님의 이 투철한 통일의지를 가슴깊이 느꼈고 금번 모스크바선언에서 다시금 더욱 깊이 절감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대로 이땅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과감히 벌여 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남측인사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회창일파와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모교수는 공안당국이 강정구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진지 오래다. 그런데도 당국이 아직도 반통일적인 악법을 휘둘러대며 통일운동에 나선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공안당국이 만경대방명록에 쓴 강교수의 글을 찬양고무죄에 걸어 그를 구속했는데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것이 왜 이적행위로 되는가. 동족인 북이 적이란 말인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적이니 친북세력이니 하는데 대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의도적인 책동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빨리 보안법을 철폐해야한다. 그리고 강교수 등 구속된 인사들을 무죄석방해야한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한 인사는 공안당국이 평양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했던 범민련 관계자 6명을 구속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이 평양행사에 참가했던 범민련 간부 6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은 국민의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범죄행위이다. 당국의 승인을 얻어 방북을 했는데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 고무, 이적단체 가입 등 갖가지 죄를 씌워 범민련 관계자들을 구속한 것은 불법, 비법이 아닐수 없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이번 사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이회창일파의 책동에 가세하는 범죄적인 행위이다. 이회창일파는 애당초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면서 남북대결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반통일집단이다. 이회창은 대통령병에 걸려 좌충우돌하며 망동을 부리고 있다. 공안당국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인사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민의에 역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역집단인 이회창일파를 사법처리해야한다.≫

8.15남북공동행사에 참석했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사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가 묻혀 버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안당국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 7명을 구속수감한 외에도 다른 방북단성원들이 백두산과 묘향산 등을 방문하면서 북을 찬양했다느니 뭐니 하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방북단인사들의 백두산과 묘향산등지에의 행적과 언행을 조사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중이라면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추가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는 방북인사들에게 부당한 구실을 붙여 가혹한 형벌을 가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의 얼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조종의 산 백두산과 민족의 명산 묘향산을 보고 탄복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북을 방문해서 백두산과 묘향산을 탐승한 방북인사들의 언행은 민족의 명산들에 대한 찬양이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을 주는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파쇼공안당국이 이를 범죄시하며 추가형사처벌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의도대로 통일운동의 전면에 선 방북인사 모두를 제거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공안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도전하는 파쇼폭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민련 김성용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평양축전에서 이른바 이적행위를 해 구속수감된 자들이 국보법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그들이 내세웠던 국보법폐지의 논리가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고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증거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만행에 쾌재를 부르며 이를 국보법유지의 구실로 삼으려는 유신잔당의 이같은 행태에 온 국민이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미 존재명분을 상실한지 오랜 전근대적인 파쇼악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민련이 공안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절호의 기회삼아 이미 역사의 시궁창에 버려진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또다시 운운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추물의 집단인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이 이미 제명을 다 산 산송장들의 집단인 자민련의 극악한 행태는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한일지도부연맹은 8월 26일 일본 고이즈미총리가 한국방문과 정상회담추진의사를 밝힌데 대해 일본의 군국주의부활 우려에 대한 해명없이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외교관례와 한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처사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동영최고위원은 27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부친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안동선최고위원의 발언은 지극히 타당하며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총련 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이 26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리경구, 송상준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일본각계의 광범한 사회계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피해국 민중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지난 13일 끝끝내 ≪야스쿠니신사≫참배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국가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제사회앞에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7일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주체 90, 8월 29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8월 28일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관하 초소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8월 28일 조선인민군 갈마휴양소를 방문하시고 휴양생들과 만나셨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들의 평양축전보도가 사실보도의 균형감각과 시대적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방북단성원들의 여러 성과를 외면한채 언론들이 방북단 일부의 소위 돌출행동만 부각해 보도했다고 비판하고 언론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의 이같은 성명은 국민의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각계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 5명이 28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의원회관 8층 대강당에 올라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력감축문제로 78일째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울산 태광산업이 28일 오전 정리해고 대상자 412명의 명단을 최종통보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회창퇴진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중진인 이모의원은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고립상태에 처해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이회창때문이다. 이회창의 독단과 전횡이 한나라당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을 ≪관변단체≫, ≪사회주의적집단≫, ≪홍위병≫으로 몰아대고 있으니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지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도 대권을 차지할 꿈을 꾸고 있으니 정말 망상이 아닐수 없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자면 이제라도 이회창을 퇴진시켜야한다. 친일후손인데다가 법관시절 수많은 애국적인사들을 처형하는데 직접 관여한 이회창을 지지할 국민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는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신당창당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패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회창은 스스로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또 김모의원은 국민의 배척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에 소속된 것을 수치로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남북대결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잘보여 대권을 따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어리석은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을 제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에 잘보여도 부시가 지지표를 찍어줄수는 없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이회창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회창에게 끌려다니다가는 망할수 밖에 없다. 만일 이회창이 권좌에 앉으면 군사독재보다 더 악독한 독재가 실시될수 있고 북침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그는 정말 위험한 분자이다. 더 늦기 전에 퇴출시켜야한다.≫

민주당 정동영최고위원은 안동선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아버지 친일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최고위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회창의 아버지가 일제시대때 고등계 형사보다 무섭다는 검찰서기를 지냈다면 당연히 한점의 의혹이 생길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최고위원은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대선주자부터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인권, 사회, 노동, 교육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토론회를 갖고 조선일보반대운동의 취지와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6.15남북공동선언기념탑을 무허가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전격으로 철거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측은 지난 25일 학교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축했다면서 학교 정문옆에 있는 6.15남북공동선언기념탑을 철거했습니다.

이 기념탑은 지난 6월초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6.15 1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가 모금운동을 통해 설치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던 학교측이 조형물을 기습철거한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념탑철거가 반통일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체 90, 8월 30일

지난 27일 한국청소년복지진흥원에 근무하는 오모씨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면서 어린이식품공장을 참관하신 소식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V를 보니 **김정일**장군님은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민족의 어버이시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다. 러시아를 방문하시는 머나먼 5만여리 장정에 그분께서 하셔야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으랴만 어린이들을 위해 식품공장까지 참관하시는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지난 7월 8일에도 평양 어린이식품공장을 현지시찰하셨다. 어린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는 절세의 위인의 슬하에 있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래서 이북민중은 그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맡기고 아무런 근심없이 행복에 넘쳐 있는 것이다.≫

동료들은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자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최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주역이 돼 8.15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의 활동을 문제시하는 괴이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급하고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반통일분자, 매국반역자들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그 활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회합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합에서는 남과 북, 해외가 따로 있을수 없고 그 장소가 문제시될수 없다면서 그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장을 걸고 들면서 개폐막행사에 참석한 방북인사들을 문제시하는 것은 달보고 짖어대는 개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더욱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른바 만경대방명록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경대가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의 상징으로 만방에 빛나고 있는데 언급하면서 광복직후 김구씨도 만경대를 방문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만경대를 칭송했지만 그에 대해 누구도, 어디에서도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일파가 이에 대해 까박을 붙이고 있는데는 6.15공동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보려는 저의가 내포돼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또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일으킨 소동에 동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자가 되어보려는 이회창일파의 정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돼 결국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목에 거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그 추종세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범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른바 통일대축전파문과 만경대방명록파문소동은 즉각 중지돼야 하며 구속인사들은 무조건 지체없이 석방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8월 28일 8.15평양공동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소중한 성과를 남긴 이번 대축전을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온갖 흠집을 내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언론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공주의적공세를 중단하고 야당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리적이고 대안있는 정책논쟁에 나서며 당국은 구속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후속수사를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8월 29일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평양 8.15남북공동행사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갖자는 제의를 해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대변인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계민중은 공안당국이 평양축전방문단의 일부성원들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 최모군은 공안당국이 강정구교수를 비롯한 방북인사 7명을 구속한 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속에서 존경받고 있는 강정구교수가 만경대를 참관하고 방명록에 글을 남긴 것은 통일을 위한 것으로써 하나도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도 만경대를 방문하면 의례히 글을 남긴다. 하물며 같은 민족이 만경대를 참관하고 방명록에 자기의 소감을 쓴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그런 것까지 문제시해서야 어떻게 통일을 하겠는가.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당국은 통일할 의사가 털끝만치도 없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었다. 사법처리대상은 강교수가 아니라 통일을 반대하는 이회창과 같은 극우익보수세력들이다.≫
범민련남측본부의 한 간부는 이번 방북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한나라당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모두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것같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번에도 독기를 잔뜩 품고 있다가 방북인사 가운데 일부성원들이 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개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시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 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어째서 문제로 되는가. 확실히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옳고 그른 것도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다. 나는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이회창을 하루속히 퇴진시키는 여기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수 있다는걸 다시금 느꼈다. 그런만큼 나는 한나라당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결심이다.≫
광주시에 사는 김광모씨는 방북인사들가운데 일부 성원들을 구속한 문제를 놓고 볼 때 국보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식으로 돼있는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건에선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수 없고 자유로운 통일논의도 할수 없다. 사실상 국보법은 남북공동선언발표로 그 존재가치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직도 이 악법을 휘둘러대면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비극중의 비극이라고 본다. 당국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즉시 철폐하고 이 악법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비동맹운동승리 40주년에 즈음해 이북 외무성에서 8월 29일 저녁 연회를 차렸습니다.
연회에는 이북주재 비동맹운동성원국 및 옵써버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규탄해 8월 2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8월 31일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주한미군탱크훈련장인 다그마훈련장입구에서 주민 50여명이 미군탱크 20여대를 막고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서는 8월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일부 인사들을 구속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속된 방북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8.15방북단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이념공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방북활동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그리고 경실련 등 10개 여성시민단체는 30일 8.15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방북활동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8.15통일행사에 참가했던 방북단이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시민단체는 8.15방북단의 활동을 문제삼아 사회를 집단적이념갈등으로 몰고가서는 안되며 또 이를 이유로 관계부처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이번일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퇴색시키거나 민간단체의 통일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방북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신중해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성시민단체는 이번 일을 민주적토론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아 통일과정의 모순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천도교 등 7대 종단이 임동원통일부장관의 해임에 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7대종단은 지난 8월 24일에 이어 30일에 성명을 내고 8.15방북단의 활동을 문제삼아 임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며 민족사회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단대표들은 통일부장관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책임자로써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성숙된 민권관계정립에 대치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통일애국단체들의 의로운 활동을 친북세력의 준동이니 뭐니하며 시비중상하고 있는데 대해 각계가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주변지역으로 미사일기지를 이전하려는 국방부와 인천시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영종미사일이전저지대책위원회는 8월 28일 미연방상무국과 국제민용항공기구 등에 미사일기지이전반대운동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는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규탄해 8월 3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8월 30일 이북을 방문한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전문을 우즈베키스탄신문 ≪예진스뜨보≫ 제34호가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을 모셨습니다.

나이지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8월 30일 담화를 발표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중국잡지 ≪***≫ 제17호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관련한 사진들을 수록했습니다.

주체 90, 9월 1일

지난 8월 27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통일운동가 윤영철씨가 통일운동단체회원 모임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바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8.15방북단문제로 임동원통일부장관을 해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임동원장관의 해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측추진본부는 8월 30일 보고대회를 갖고 평양행사와 관련해 임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도 논평을 내고 정치권은 통일부장관해임요구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상당수도 임장관해임요구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자투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까지 모두 927명이 투표에 참가해 54%인 505명이 임장관이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7대종단으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는 임동원통일부장관의 해임요구는 온당치 못하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8월 31일 이남순위원장과 28개 산별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육부문부터라도 내년 1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9월 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전차장비이동훈련을 강행해 각계의 비방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는 이른바 연례적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전차와 장갑차를 끌어내 1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북한산길에서 구파발 세거리, 홍제 네거리를 거쳐 서대문구 현저동방면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감행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했습니다.

군당국이 계속 벌여놓고 있는 이같은 전쟁연습은 한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써 온겨레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공안조사청에 의해 자신들도 모르게 신상뒷조사를 당한 재일한국인이 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월 31일 전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는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얼굴사진, 가족구성, 거주, 이력 등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조총련과 재일민단은 이같은 조사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대표단 성원들이 8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 이경구, 송상준씨들과 상봉했습니다.

이따르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과학원의 한 교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전개계획에 대해 쓴 책에서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이 겉보기에는 마치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도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에 공격무기를 대비하려는 미군부의 위험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준비위원회결성≫,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준비위원회 결성식 진행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8월4일 에콰도르 쿠엔카종합대학에서 진행됐다.

모임에는 에콰도르 쿠엔카종합대학 총장 하이메 아스투릴요를 비롯한 정계, 사회계, 학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모임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에콰도르위원회 쿠엔카지부 위원장 오스왈도 라리바 알바라도가 선출됐다.

준비위원회는 2002년 2월16일을 맞으며 축전채택,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여러가지 정치, 문화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기로 토의결정했다.

8월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이집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다.

결성식에는 이집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성원들이 참가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결성식에서는 행사계획이 토의결정됐다.

8월7일 시리아 디마스크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시리아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정치국위원인 당자료연구부장 리야드 술래이만박사가 선출됐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과 2월의 명절에 즈음한 행사계획들을 토의결정했다.

8월9일 말라가시혁명적근로자직업연맹청사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말라가시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다.

결성식에는 말라가시의 기술교육 및 직업양성성 사무국장,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총서기와 아레마당, 독립대회당, 자주권을 위한 전투행동당, 사회주의진보당 등 8개 정당대표들, 7개의 직업연맹들을 망라하는 전국노조전선과 연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로 말라가시국회 의장과 상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기술교육 및 직업양성상을, 부위원장으로 기술교육 및 직업양성성 사무국장을, 서기장으로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8월15일부터 다음해 4월15일까지를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했다.

8월9일 루마니아사회주의당 청사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루마니아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다. 결성식에는 루마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바실레 오를레아누와 부위원장들, 당원들,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간부들과 성원들이 참가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회주의당 위원장이 선출됐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8월10일부터 다음해 4월15일까지를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8월16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파키스탄민족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이전 정부상들이었던 아파크 한 샤이드와엔. 디. 한, 인민당 중앙공보비서 타지 하이더를 비롯한 정당, 단체 지도자들, 학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인민당 중앙공보비서가, 부위원장으로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의 활동계획이 발표되었다.